



〈조선왕조실록〉 내 윤음(綸音)에 나타난 정책 소통

박종민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남태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조수향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재학
이영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수료

Policy Communication as Reflected in Royal Edicts (Yuneum)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ongmin Park**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Kyung Hee University)

Taewoo Nam***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Suho Ba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Soohyang Cho*****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Youngkyu Lee*****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Yuneum (綸音) are royal edicts issued by Joseon kings to officials and the general populace. They serve as a means of public communication to convey state policies and moral teachings. This study analyzes 1,018 instances of Yuneum recorde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Yuneum served as an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in the Joseon politica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A2A03085407].

** jongmin@khu.ac.kr, first author

*** namtaewoo@skku.edu, corresponding author

**** baes@skku.edu, third author

***** soohyang11@skku.edu, fourth author

***** bishop4192@skku.edu, fifth author

system, helping to increase royal authority and centralize control. Beyond its policy-related role, it also served to legitimize the ruling structure. Second, royal edicts communicated signals to the public, proving the king's effective control over central officials. At times, Yuneum also functioned as a joint communication from the king and central officials to the people. Third, the content of Yuneum primarily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centralized governance, emphasizing authority, regulation, and mobilization. Policy communication was often structured in the form of concrete directives aimed at guiding behavior and shaping attitudes. The communication style was characterized by a restrained emotional tone and a post-hoc accountability approach in addressing issues. Fourth, there were notable shifts in communication strategies over time: in the early Joseon period, Yuneum focused on persuasion targeting central officials for national administration; in the mid-Joseon period, it emphasized regulation and authority; and in the late Joseon period, it evolved into a nationwide policy communication method centered on financial distribution, incentives, and post-response measures. Fifth, Yuneum exhibited a dual function in communication. To the general public, it conveyed the image of a benevolent ruler, whereas to officials and the royal family, it embodied the stern authority of the sovereign. Based on the discussions presented,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ve points. First, by analyzing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Yuneum—a representative means by which state power in the Joseon Dynasty communicated with the people—this study attempts a systematic examination of public communication methods in the traditional era. Second, it offers an integrated explanation of how the strategic shifts in governance communication (from persuasion → regulation → incentive) corresponded with political regime changes (from the Hun'gu faction → Sarim scholars → dominant aristocratic families) across the early, middle, and late periods of Joseon. Third, the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s the existence of a multi-layered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king, officials, and the people,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into political communication theory. Fourth,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Yuneum's "dual communication strategy"—disciplinary and commanding toward officials, while benevolent and gracious toward the people. Finally, the study offers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degeneration of communication means by political power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hrough the lens of Yuneum.

Keyword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Yuneum, policy communication, types of policies, types of policy instruments

국문초록

윤음(綸音)은 조선시대 국왕이 관료와 백성 등 국민에게 내린 훈유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 정책과 도덕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 사용된 대민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 내 1,018개 윤음을 내용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윤음은 조선 시대 정치에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적 통치의 핵심적인 소통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정책적 기능뿐만 아니라 통치 구조를 정당화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둘째, 임금의 윤음은 임금이 중앙관료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대국민 메시지 역할도 하였고, 임금과 중앙관료의

합치된 대국민 메시지 역할도 했다. 셋째, 율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집권 통치 특징인 권위 부여, 규제, 동원과 관련된 정책이 많았고, 대상의 행동 유도과 태도 변화 목적의 구체적인 지침 형태의 정책 소통이 많았다. 소통 방식은 감성적 정서 표현을 절제한 체, 쟁점들의 사후 대응적 책임 수용 방식이 많았다. 넷째, 조선초기 중앙관료 대상 국가운영 중심의 설득 소통, 중기 규제·권위 중심 소통, 후기에는 지방 및 전국대상 인센티브·사후반응의 재정·분배 중심 정책 소통을 했다. 다섯째, 이러한 조선 임금의 율음 소통은 이중적 기능으로 일반 백성에게는 관대한 임금의 소통이고 관료 및 왕족에게는 엄한 군주의 소통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더불어 결과를 기초에 논의된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다음 다섯으로 정리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가권력이 국민(백성)과 소통했던 대표적 수단인 ‘율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시대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두 번째 의의는 통치 커뮤니케이션의 전, 중, 후기시대별 전략 변화(설득 → 규제 → 인센티브 중심) 추적을 정치체제의 변화(훈구 → 사림 → 세도 가문)와 통합적으로 설명했다. 셋째, 본 연구는 ‘왕-관료-백성’의 다층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존재했음을 실증한 것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넷째, 율음이 관료에게 규율적·명령적, 백성에게 온정적·은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중적 소통 전략’을 사용했다는 분석을 처음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율음을 통해 조선 말 정치 권력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변질에 대한 역사적 성찰도 제공한다.

핵심어 : 조선왕조실록, 율음, 정책 소통, 정책 유형, 정책 수단

1. 서론

대국민 관계(대민중 관계, 대민관계, 대민관계 커뮤니케이션, 대민 커뮤니케이션)¹⁾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전 세계에 남아 있는 다양한 역사적 증거를 통해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치자는 연설, 방송, 출판물, 신문, 행사, 시위, 서신, 문화적 관례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 왔다. 이를 통해 정책과 결정을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유도했으며, 공식 출판물과 신문을 통해 주요 사안들을 전파하고,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통치자의 대민관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은 통치자와 민중 간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 조직의 대민관계 역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며, <삼국사기> 등 고대 사료에 나타난 대민관계의 단서를 다룬 학술적 탐구도 미진한 상황이다. 오랜 역사에 비해 사료의 양이 제한적이며, 기존 사료들도 압축적인 서술로 인해 정밀한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박종민 외, 2024).

이에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록문화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대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는 상소 제도, 신문고, 격쟁 등 다양한 상황식 소통 체계와 함께 율음, 교서 등의 하향식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히 활용되던 시기였다. 특히 율음은 국왕이 정책, 도덕적 교훈, 국가적 중대사를 관료와 백성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현대의 대국민 PR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율음은 유교적 가치부터 국가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율음을 조선의 대표적 대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보고, 이를 정책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대민관계 철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박종민 외, 2024).

기존 연구에서는 율음을 행정적 도구로만 간주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를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재조명하고, 정부 PR의 기원을 조선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는 공중관계(public relations)가 19세기 미국에서 본격 연구되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서 유사한 소통 전략이 실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율음은 동양의 대민관계 역사를 서양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1) 본 연구에서는 대민중 관계, 대민관계, 대민관계 커뮤니케이션, 대민 커뮤니케이션, 정책커뮤니케이션, 정책PR, Government PR, GPR을 큰 의미 차이 없이 혼용 사용하였으며 커뮤니케이션과 소통도 혼용 사용하였음.

본 연구는 윤음의 내용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윤음이 제공한 정보 전달과 행동 유도 기능도 조명하였다. 분석 대상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472년간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이며, 교육과학기술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한 텍스트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은 다양한 변수에 기반하였다. 윤음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1,018건의 기록 중 100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선왕조실록 DB의 분류 색인과 비교하며 분석 항목(유목)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시대 구분은 정치적·사상적 변화를 기준으로 전기(태조15세기), 중기(16세기~18세기), 후기(18세기~20세기 초)로 나누었다. 이 구분은 윤음의 내용과 맥락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공중의 특성에 따라 윤음의 대상 집단을 왕실, 관료, 백성, 유생으로 세분화하고, 한문본과 언해본의 구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공간적 특성에 따라 중앙, 지방, 전국 반포 등으로 나누어 윤음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윤음의 정책 영역은 국방, 교육, 사상, 인사, 왕실, 정치, 사법, 재정, 천기, 농업, 풍속, 외교 등으로 분류되었다. 정책 유형은 로위(Lowi, 1964)의 분배·재분배·규제·구성 정책과 윌슨과 디올리오(Wilson & DiIulio, 2001)의 다수주의·기업가·고객·이익집단 정책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정책 수단은 베둥(Vedung, 1998),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 1990), 후드(Hood, 1986)의 기준에 따라 각각 규제·인센티브·설득, 권위·역량형성·상징·학습, 정보·법·재원·조직 등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정책 의제 설정은 콕 외(Cobb et al., 1976)의 동원모형, 공고화모형, 외부주도모형, 내부접근모형에 따라 구분되었다.

윤음은 국왕이 국민에게 내리는 훈유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자 기록물이었다. 본 연구는 윤음을 정보 제공, 태도 변화, 행동 유도라는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튼(Hutton, 1999)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유형, 감성 전략 사용 여부, 콕스(Coombs, 1999/2001)의 위기 대응 전략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윤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현대 정부의 공중관계 개념으로도 분석 가능한 사례임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윤음을 통한 통치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적 맥락과 변화 양상의 체계적 분석은 정치사·언론사·커뮤니케이션 연구 모두에 의미 있는 학문적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2. 문헌 고찰

1) <조선왕조실록> 내 윤음의 역할 및 연구 가치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건국 초기인 1392년부터 철종이 다스리던 1863년까지 472년 동안 조선 왕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공식 국가 기록물이다. 이 실록은 역대 임금들의 행적과 조선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사상 등 다양한 분야의 사실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한국 기록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료로 평가받는다. 1972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실록은 임금이 서거한 후 실록청에서 편찬되었으며, 사초, 춘추관시정기,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의 다양한 사료를 활용해 작성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편찬 방식은 사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권력자의 개입을 막기 위한 조선의 역사 기록 철학을 반영한다. 더불어 실록은 단순히 조정의 정무를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국제 정세, 국방 정책, 천문학, 기상, 예술, 법령, 민중 생활 등 조선 시대의 다양한 동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록의 학술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당대 대민 커뮤니케이션의 양상과 철학을 고찰하였다(김경수, 2008; 신병주, 2006; 한우근, 1998).

윤음은 조선시대 국왕이 관료와 백성 등 국민에게 내린 훈유(訓諭)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 정책과 도덕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 사용된 대민 커뮤니케이션 수단²⁾이다. <예기>의 구절에서 유래된 윤음이라는 용어는 국왕의 말이 실처럼 이어져 굽은 바늘처럼 전해진다는 비유를 담고 있다. 윤음의 내용은 의례적 권고에서부터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특별 지시까지 다양하며, 농업 장려, 노인 공양, 반란 진압, 충효 포상, 과거제 개혁, 법령 반포, 기근 구제, 음주 금지 등 조선의 국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언해본이 첨부되거나 독립적으로 간행되었다. 정조는 윤음이 세밀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 탁본을 제출하고 현판으로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음이 갖는 효과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윤음은 단순한 행정 문서를 넘어 정치, 사회, 경제 관계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대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두산백과 두피디아, 한국고전용어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한편, 대민 커뮤니케이션은 오래전부터 통치자의 핵심 행위로 자리 잡아 왔다. 메소포타미아

2) 윤음은 왕의 명을 받아 나라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료의 발포나 보고 등이며 사용되는 특별한 발음법이 있다. 윤음은 대개 국왕의 명령을 나타내며, 왕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정식 문서나 보고에 사용되었다.

에서 농사 공보를 통해 농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진나라 상양의 법률 홍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치자의 대국민 소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대민관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특히 조선 이전 시기의 체계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록의 한계와 방대한 시기의 압축적 서술로 인해 <삼국사기>나 <고려사>는 구체적인 대민 커뮤니케이션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으로 작성된 <조선왕조실록>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하향식 대민관계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사례인 윤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윤음은 국왕이 충효와 같은 유교적 도덕에서부터 국가 중대사에 이르는 내용을 관료와 백성들에게 전달한 매체로, 근대 국가의 대민 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기존 연구들이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예: 상소, 신문고)에 초점을 맞췄다면, 본 연구는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윤음이 조선시대 대민 커뮤니케이션에서 수행한 역할과 사회적·정치적 배경 속에서의 변화를 조망하고, 조선왕조 대민 커뮤니케이션 철학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노병성·권오박, 2011; 박정규, 1993; 박종민 외, 2024).

2) 조선의 대민관계 커뮤니케이션과 정치 변동 그리고 윤음의 역할

조선시대 언론의 역할은 관학(官學)인 유학을 바탕으로 성리학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동양에서는 유학의 전통을 기반으로 언론이 교화(教化)와 왕도(王道)를 추구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교화란 '인의(仁義)를 통해 신민(臣民)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성인의 가르침을 일깨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유교적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최승희, 2004). 왕도는 백성을 천하의 주인으로 여기는 민본주의(民本主義)를 바탕으로 군신(君臣)과 군민(君民)의 끊임 없는 소통을 강조하며, 언론이 위민(爲民)을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박기성, 2004; 이규완, 1991; 이석규, 1998).

조선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은 18세기 영조(英祖)와 정조(正祖) 시기에 이르러 민의를 전달하는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이 특히 발달하였다(손석춘, 2004). 연구는 주로 삼사(三司)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과 같은 언론 기구, 공론(公論)의 개념, 소원(訴願) 제도 등 상향식 커뮤니케이션에 집중되었다(박정규, 1993; 오종록, 2009). 박정규(1993)는 이러한 연구 경향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선시대의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교서와 윤음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를 조정의 공중을 설득하기 위한 매체로 분석하고, 이러한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근대적 언론의 초기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복수(1993)는 조선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고문서 중심으로 7가지 유형³⁾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 커뮤니케이션의 실제적인 수행 방식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다만 문서 외에 격쟁(擊箏)이나 신문고(申聞鼓)와 같은 비문서적 커뮤니케이션

니케이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제시하였다. 노병성과 권오박(2011)은 조선시대의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라는 교화(教化) 기록물을 통해 분석하였다. 삼강행실도는 유교적 소양을 그림과 설명으로 전달하며 조정과 백성 간의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대민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대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정치적 변동과 사회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고, 윤희음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Table 1〉 참조).

조선시대의 정치적 변화는 대민 커뮤니케이션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양 사회는 사족(士族)⁴⁾ 중심의 향촌 사회로 구성되었으며, 사족은 유교적 질서를 바탕으로 왕도를 실현하고 위민(爲民)을 목표로 한 통치 집단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민중의 위상이 상승하며, 향약과 두레, 격쟁과 상언 제도 등 다양한 언론 제도가 정치적 상황에 맞게 발전하였다(이태진, 1989, 1999). 손석춘(2004)은 조선시대 공론(公論)의 중요성과 경제적 변동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체제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오종록(2009)은 상업의 발달과 시장 권역의 확장으로 지역 간 의사소통이 활발해졌음을 밝혔다. 박광용(2001)은 조선 조정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격쟁 제도⁵⁾를 활성화하고 공론 기반의 정치 체제를 확대해 나갔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조선왕조의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 삼구분법(三區分法)⁶⁾을 채택하여 시대적 변화와 언론 제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고영진, 1995; 김돈, 2003).

윤희음은 조선시대 정부가 대민 관계에서 활용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현대의 정부 PR 활동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배스킨 외(Baskin et al., 1997)에 따르면, 정부 PR의 주요 목적은 정책 지지, 공중의 혼선 완화, 정보 제공, 참여 유도, 공중의 의견 수렴 등으로 나뉜

3) 제1유형 명령은 국이나 관부가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 제2유형 쌍방향은 국왕이나 관부가 관부나 백성이 올린 문서에 대해 답하거나 판결하는 것, 제3유형 업무보고는 관부가 업무에 대해 국왕에게 올리는 것, 제4유형 업무전달은 관부와 관부간의 업무에 대해 전달하는 것, 제5유형 소식전달은 관부가 일반 백성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 제6유형 의사소통은 사인(私人)과 사인 간의 소통, 제7유형 통지는 서원, 향교, 결사 등이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 등.

4) 양반 계층에 속하는 지방 유력 가문.

5)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

6)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한 고영진(1995)의 조선시대 삼구분법.

구분			세부내용
조선 전기	14세기 ~ 15세기	태조 ~ 중종	조선의 건국과 체제의 완성
조선 중기	15세기 ~ 18세기	중종 ~ 영조	사림의 등장과 붕당정치의 개막
조선 후기	18세기 ~ 20세기	영조 ~ 순종	붕당정치의 붕괴와 세도정치의 개막

Table 1. Classification of Top-Down and Bottom-Up Public Communication

매체	상향식 대민 커뮤니케이션 세부내용
언관(言官)	임금에게 간언하는 일을 맡은 관원. 사헌부(司憲府)와 사간원(司諫院)의 관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상소(上疏)	신하가 왕에게 글로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제도
윤대(輪對)	임금 앞에 나아가 진술하는 것
규환(規闈)	왕이나 고관들의 행차 길에 뛰어 들어 직소하는 제도
신문고(申聞鼓)	억울함을 당한 백성이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만든 매체
등장(等狀)	조선시대에 집단으로 언명해 관청에 올렸던 소장, 청원, 진정서
만인산(萬人傘)	주로 지방 관리들의 치적을 중앙 정부 요리에 알리기 위해 이용한 큰 우산. 큰 비단 우산에 붉은 실로 지방 관리의 이름과 직위를 적고 장식하여 주목을 끌게 만들
복합(伏閣)	대궐의 합문 밖에서 하는 조정의 당상관 이상의 고급 관리들이 행하는 시위 형식
괘서(掛書)	조정이나 관가의 비리를 고발하거나 각성을 촉구하는 대자보

매체	하향식 대민 커뮤니케이션 세부내용
조보(朝報)	왕실의 명령, 정보, 의도 등이 관리 등에게 전달되는 대표적 PR 매체
비망기(備忘記)	국왕의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달하는 문서
비답(批答)	상소에 대한 국왕의 답변
교서(敎書)	국왕의 명령서
윤음(綸音)	국왕의 훈유문: 국왕이 관인과 인민을 타이르는 내용을 담은 문서
전교(傳敎)	국왕의 정령을 뜻하며, 주로 승정원을 통하여 전달
돈유(敦諭)	국왕이 의정이나 유현에게 면려를 권하는 글
유서(諭書)	국왕이 각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찰사, 절도사, 방어사들이 부임할 때 내리는 명령서
봉서(封書)	겉봉을 봉한 문서로서 종친이나 근신에게 내리는 사신, 혹은 양행어사가 임지로 나갈 때에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4대문 밖에 나가 보도록 쓴 명령서
판부(判付)	상주한 형사 사건에 대한 국왕의 판결문의 형식
연설(筵說)	경연에서 이루어진 국왕과의 토론 내용, 일종의 회의록
방문(榜文)	오래 전부터 상용되어온 광고문이나 게시문

Note. Adapted from No & Kwon (2011).

다. 조선시대의 윤음 역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왕실 경사 시 세금 탕감, 흉년 위로, 농업 장려 등 민심을 수습하고 교화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지녔다(김현옥, 2008; 박정규, 1993). 윤음은 초기에 교서와 유사하게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대상에 따라 한문과 언해본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이는 하향식 대민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서학과 동학의 유행, 양명학 등 새로운 사상적 변동에 대응하여 윤음을 활용한 통치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백성을 설득하고 훈유하려는 현대 정부 PR의 목적과 일치한다(박종친, 1999; 장희홍, 2006).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윤음을 분석하여, 대민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역할과 당대 정치·사회적 변동 속에서의 활용 방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한편 실록을 대민 관계 커뮤니케이션 관점이 아닌 왕조의 행정과 정책적 관점에서 연구된 이전 연구들은 존재한다. 예컨대, 한만봉 외(2005)와 차세영(2018)은 조선의 관료 임용 제도를 현대 인사행정 이론과 연결지어 해석하였고, 문혜정(2018)은 유교 관련 기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시대별 정책 변화를 규명하였다. 지방행정 및 도시 정책에 있어 하상군(2023), 김홍순(2009), 이태화(2023)는 각각 지방행정 체계, 도시계획의 가치 혼재, 환경문제 대응을 다루었고, 김영재와 주운현(2023), 유기현(2022)은 인구 및 조세 정책의 제도적 변천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옥주와 장덕희(2021), 김동현 외(2012), 김진백(2018)은 사회복지, 산불 방지, 해양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며 실록의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한 행정과 정책 관련된 연구는 존재하나 본 연구 목적인 왕 또는 정부의 대민 관계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조선시대 대민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율음이 수행한 역할을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의 시대 구분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영진(1995)의 구분을 참고하여 태조에서 중종까지를 전기, 명종에서 영조까지를 중기, 정조에서 순종까지를 후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각 시대별 율음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고찰한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이다.

연구문제 1. 조선시대 시기(전, 중, 후)에 따른 율음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어떠한가?

다음 연구문제는 조선 임금들이 내린 율음 별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율음이 가장 많이 내린 임금의 정조, 영조, 고종, 순조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율음의 빈도와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종(32), 선조(49), 영조(196), 정조(262), 고종(155) 시대에 내려진 율음의 특성을 파악해보았다.⁷⁾

7) 각 실록별 자료 수는 태조(1), 세종(32), 문종(7), 단종(8), 세조(34), 예종(9), 성종(22), 연산군(3), 중종(15), 명종(14), 선조(49), 선조수정실록(3), 광해군일기 중초본(17), 광해군일기 정초본(11), 인조(15), 효종(10), 현종(4).

연구문제 2. 율음의 주체인 조선 임금(세종, 선조, 영조, 정조, 고종)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어떠한가?

공중의 특성에 따른 율음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목표 공중을 왕실, 관료, 백성, 유생으로 세분화하였다. 전언한바, 왕실은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었으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계층이었고, 유생은 정치 참여를 준비 중인 신분으로, 관료를 대상으로 한 율음과는 구분되었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3. 율음의 목표공중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어떠한가?

정책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율음을 분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반포된 율음은 이를 별도의 공간적 항목으로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문제 4. 율음의 대상공간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어떠한가?

율음의 정책 영역은 ‘국방, 교육, 사상, 인사, 왕실, 정치, 사법, 재정, 천기, 농업, 풍속, 외교’로 구분되며, 정책 유형은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로위(Lowi, 1964)의 분류로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기타로 나뉘었으며, 두 번째는 윌슨과 디올리오(Wilson & DiIulio, 2001)의 체계로 다수주의정책, 기업가정책, 고객정책, 이익집단정책으로 구성되었다. 정책 수단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되었으며, 베둥(Vedung, 1998)의 분류는 규제, 인센티브, 설득으로 나뉘었고,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 1990)은 권위, 인센티브, 역량형성, 상징권고, 학습을 포함했으며, 후드(Hood, 1986)는 정보개개, 권위(법·규제), 재원, 조직으로 정의되었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콕 외(Cobb et al., 1976)의 이론에 따라 동원모형, 공고화모형, 외부주도모형, 내부접근모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들은 아래와 같다.

현종개수(11), 숙종(47), 숙종보궐정오(1), 경종(9), 경종수정(7), 영조(196), 정조(262), 순조(80), 헌종(7), 철종(18), 고종(155), 순조(1), 순조부록(4)이며 이 가운데 분석적 의미가 포함된 1,018건이 분석 대상이다.

연구문제 5, 6, 7, 8. 율음의 정책영역, 정책유형, 정책수단,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는 어떠한가?

또한 율음은 ‘국왕이 국민에게 내리는 훈유(訓諭)나 문서’로 정의되며, 이는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그 내용을 담은 기록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율음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보고, 그 목적을 정보 제공, 태도 변화, 행동 유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허튼(Hutton, 1999)의 기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사전추구적, 사후반응적으로 구분된 주도성과 인식 개념 중심적, 실제 중심적인 전략으로 나뉘었다. 또한 정서 메시지는 감성전략 사용 여부에 따라, 위기 대응(Coombs, 1999/2001)은 방어전략 또는 수용전략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9. 율음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차이는 어떠한가?

4. 연구방법

1) 내용분석의 분석변수 및 변수값

(1) 율음의 주체인 임금과 임금재위

조선 임금들의 재위 연수는 영조, 숙종, 고종, 선조, 중종, 순조, 세종 순으로 재위 기간이 길었다. 본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 국역본⁸⁾을 자료로 활용하여 율음의 내용을 분석한다. 원문의 번역본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국역본을 바탕으로 율음 관련 내용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율음 관련 자료는 총 1,018건이며, 각 실록별 자료 수는 태종(1), 세종(32), 문종(7), 단종(8), 세조(34), 예종(9), 성종(22), 연산군(3), 중종(15), 명종(14), 선조(49), 선조수정실록(3), 광해군일기 중초본(17), 광해군일기 정초본(11), 인조(15), 효종(10), 현종(4), 현종개수(11), 숙종(47), 숙종보궐정오(1), 경종(9), 경종수정(7), 영조(196), 정조(262), 순조(80), 현종(7), 철종(18), 고종(155), 순종(1), 순종부록(4)이며 이 가운데 분석적 의미가 포함된 1,018건이 분석

8) <https://sillok.history.go.kr/>

대상이다. <조선왕조실록>은 단순히 역사 연구를 위한 자료의 보고가 아니라, 조선 500년간의 정책학적 역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자료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록에 기록된 윤음이 조선시대 전체 윤음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적 대표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현존하는 원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체 시기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아카이브가 500년간의 역사를 비교적 사실에 근거해 면밀히 기록한 자료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조선의 시대구분

본 연구는 윤음이 시간의 흐름과 정치적 변동, 임금의 재위 기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영진(1995)의 시대구분을 참고하였다. 정치적 변동에 따른 정책 내용을 분석할 때는 임금의 재위와 별도로, 정치·사상적 변화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고영진(1995)의 기준에 따르면,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뒤 체제 정비가 완료된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를 조선 전기(前期)로 정의한다. 이어서, 사림이 정치적으로 부상하며 붕당정치가 본격화된 15세기에서 18세기를 조선 중기(中期)로, 붕당의 붕괴와 척족 중심의 세도정치가 이루어진 18세기에서 20세기를 조선 후기(後期)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구분을 따라 태조에서 중종까지를 전기, 명종에서 영조까지 중기, 정조에서 순종까지를 후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윤음 정책 영역

윤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쟁점별로 구분하기 위해 유목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실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윤음으로 검색된 1,018건 중 100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분류색인을 참고해 윤음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목을 설정하였다. 쟁점은 군사에서 외교까지 12개의 주요 유목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유목 아래 1개에서 8개까지 세부 유목을 추가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2>에서 제시된 구분법은 정책영역 간 상호배타성(mutual exclusiveness)과 포괄성(exhaustiveness)을 확보하려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 간 지속적인 논의와 실록 기사 리뷰 결과를 반영해 질적 코딩을 수행하였다. 윤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인사, 왕실, 정치, 사법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었다. 인사 분야는 현대의 공공관리 관점에서 일부 효율적·효과적 인사정책을 담고 있으나, 대부분은 인물의 임명·파직 및 귀양과 같은 기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왕실 관련 기사는 종친의 행위 보고, 종친 행사, 처우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민정수석이나 감찰의 역할과 유사한 기능도 언급되었다. 정치 관련 기사는 특정 정책영역으로 해석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현대 국회나 정당정치와 같은 내용은 정치영역으

로 분류하고 정책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사법 영역에서는 치안과 안전과 같은 별도 정책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기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탄핵과 추국과 관련되어 인사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특정 정책이슈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현대 중앙부처나 정책기능을 기준으로 국방, 농업, 복지 등의 구분을 시도했으나, 정책영역 간 상호배타성과 포괄성을 고려한 구분은 여전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에 따라 2명의 연구자와 2명의 코더가 논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구분을 완성하였다.

Table 2. Variable Values for the Analysis of Yuneum Content by Policy Sector

정책 영역	세부 유목
군사	군기, 군정, 전쟁
교육	교육
사상	유학, 불교, 서학
인사	임면, 승진, 연금
왕실	종친, 사금, 의식, 비빈, 종사
정치	개혁, 정변, 편찬, 개혁, 선유, 구언, 탕평, 지방
사법	탄핵, 송사, 행형, 사면, 추국, 치안
재정	조세, 구휼, 역
천기	일식, 가뭄, 냉해, 수해
농업	임업, 권농, 수리, 양잠
풍속	윤리, 기강
외교	명, 청, 일본, 러시아

(4) 율음 대상공간

율음은 ‘조선시대 국왕이 국민에게 내린 훈유(訓諭)의 문서’(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왕이 국민에게 내리는 훈유(訓諭) 또는 그 문서’(한국고전용어사전), 또는 ‘국왕이 관인과 인민을 타이르는 내용을 담은 문서’(두산백과)로 정의된다. 여기서 율음의 주체는 조선시대 국왕이며, 커뮤니케이션의 목표 공중은 국민, 관인, 인민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공중의 특성에 따라 율음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목표 공중을 왕실, 관료, 유생, 일반 백성으로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료와 백성은 율음이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나뉘어 활용된 점에서 내용상의 차이를 보인다. 왕실은 왕족으로 대우받았으나 정치적 행위가 금지되었고, 유생은 정치 참여를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도 정치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신분으로 관료를 대상으로 한 유목과는 구분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공간의 특성도 분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전국적으로 반포된 경우를 별도의 공간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율음이 목표 공중 및 공간 특성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5) 율음의 정책수단, 정책유형, 정책 의제 설정 과정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내 율음(綸音)을 분석하기 위해 통치 과정에서의 정책 관련 변수를

설정하였다. 주요 분석 변수로는 정책유형 I (Lowi, 1964), 정책유형 II (Wilson & DiIulio, 2001), 정책수단 I (Vedung, 1998), 정책수단 II (Schneider & Ingram, 1990), 정책수단 III (Hood, 1986), 정책 의제 설정 과정 (Cobb et al., 1976) 등이 포함된다.

먼저 정책유형 I (Lowi, 1964)은 정책을 강제 가능성과 적용 대상에 따라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배정책은 자원, 서비스, 명예, 기회 등을 개인이나 집단에 배분하며, 과도한 비용 부담이 없어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규제정책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며, 참여 집단 간 갈등과 지지 연합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재분배정책은 계층 간 소득 이전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하며, 혜택과 부담 간 불일치로 인해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구성정책은 체제 구조와 운영에 관한 정책으로, 선거구 조정이나 새로운 정부 조직 설립 등이 이에 해당한다(남궁근, 2016; 남태우 외, 2025; 박종민 외, 2021).

정책유형 II (Wilson & DiIulio, 2001)은 정책의 비용과 이익이 전체 국민에게 분산되는지,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다수주의 정책에서 비용과 이익 모두가 국민 전체에 분산된다. 기업가 정책에서 비용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지만, 이익은 국민 전체에 분산된다. 고객지향 정책에서 이익은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한다. 이익 집단 정책에서 비용과 이익 모두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남궁근, 2016; 박종민 외, 2021).

다음 정책수단 관련 배동(Vedung, 1998)은 정책 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설득으로 분류하였다. 규제는 정부가 법적 의무를 통해 원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며, '몽둥이'로 비유된다. 인센티브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철회함으로써 특정 행동을 유도하며, '당근'으로 표현된다. 설득은 논증과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설교'로 비유된다(남궁근, 2016; 박종민 외, 2021). 슈나이더와 잉그램(Schneider & Ingram, 1990)은 정책수단을 권위적 수단, 인센티브, 역량형성, 상징과 권고, 학습으로 구분하였고, 후드(Hood, 1986)는 이를 정보매개, 강제적 권위, 재원 인센티브, 조직화로 세분화하였다. 정보매개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하려는 수단이며, 강제적 권위는 법률과 규제를 포함한다. 재원 인센티브는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방식이며, 조직화는 정부 조직을 활용해 정책을 조율하거나 지원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남궁근, 2016; 박종민 외, 2021).

정책 의제 설정 과정(Cobb et al., 1976)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외부주도모형은 민간 그룹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 및 정부 의제로 전환된다. 동원모형은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의제로 확산시켜 정책을 실행한다. 내부접근모형은 정부 내 특정 그룹의 제안을 통해 정책이 형성된다.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를 이미 받은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남

공근, 2016; 박종민 외, 2021).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윤음이 담고 있는 정책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 유형과 수단을 코딩 변수로 설정하였다. 로위(Lowi, 1964)의 분류는 조선시대의 정책에도 적용 가능하며, Vedung, Schneider와 Ingram, Hood의 정책수단 구분 역시 조선시대 맥락에서 유효하다. 복수의 코더를 통해 코딩된 윤음의 정책쟁점은 네 가지 정책유형과 여덟 가지 정책수단 중 하나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분류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조선왕조의 정책 유형과 수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대적 맥락과 정책적 의의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6) 윤음의 정책 커뮤니케이션

윤음이 임금의 하향식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들이 <Table 3>에 제시되었다. 먼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정보 제공, 태도 변화, 행동 유도의 세 가지(박종민 외, 2015)로 구분된다. '정보제공'으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목적이 대민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태도 변화'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대민 공중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며, '행동유도'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대민 공중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것인 경우 이에 해당한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전략 변수로 주도성(initiative)과 실체성(substance/image)을 적용하였다. 이 변수들은 현대 공중관계(public relations)의 분석 요소들을 참고하여 도출된 것이다. 허튼(Hutton, 1999)의 3I 모델은 그루닉과 헌트의 PR 4모델이 PR 실무를 이론화하는 데 부족하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이 모델은 이익성(interest), 주도성, 실체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이익성은 조직의 이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인지, 공중의 이해를 위한 것인지 구분한다. 주도성은 PR 활동이 사전적인 전략인지, 사후적인 반응인지 분석한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주도성은 사전적으로 전략 기획이나 이슈 관리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해 공중의 반응을 관리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다음 실체성은 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인식 중심적'인가 '실체 중심적'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인식 중심에는 설득, 이미지·명성관리 등이 해당하며 실체 중심의 경우 공공정보, 관계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중 중심에서 보았을 때, 공중의 인지, 태도 변화 목적이면 인식 중심 중심, 행동 유발과 참여가 목적이면 실체 중심으로 구분되었다. 인식 중심 방식과 실체 중심 방식은 정책 수단 중 설득, 상징, 정보 제공의 유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정부의 대국민 정책 커뮤니케이션이므로 국민보다 정부를 위하는 행위는 존재하기 어렵기에 허

튼의 이익성, 주도성, 실체성 개념 중 이익성 변수는 제외하고 주도성, 실체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박종민 외, 2021).

콕스(Coombs, 1999/2001)의 위기대응전략 모델은 조직이 위기에 대해 느끼는 책임 정도에 따라 방어 전략과 수용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어 전략은 조직의 책임이 낮은 경우 사용하는 전략으로, 공격이나 부인 전략이 포함되며 수용 전략은 책임이 높은 상황에서 시정조치와 사과 전략이 사용된다. 독립적 전략으로는 변명, 자기합리화, 칭찬 전략 등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위기대응 전략 변수를 적용하여 방어전략과 수용전략 두 가지의 변수 값을 분석하였다. 수용전략은 위기적 요소의 본질적 책임이 국가 및 임금에 있기에 이를 수용하고 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어전략은 위기의 원인이 국가 및 임금에 있지 않음을 호소하고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의미한다.

다음 정책 커뮤니케이션 감성소구 전략 변수로 메시지내 정서성(emotionality)의 포함여부를 분석변수에 포함하였다. 프레이저(Frazer, 1983)의 7가지 크리에이티브 전략 중 '정서전략'의 사용여부이다. 전통적인 광고형식을 주로 사용하던 1980년대에 광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제품 성격과 소비자 심리를 고려하여 총괄전략, 선점전략,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전략, 브랜드이미지전략, 포지셔닝전략, 동조(Resonance) 전략, 정서전략 등 7가지가 제시되었다(박종민 외, 2021). 이 중 정서전략이란 다양한 인간 감정에 소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정서적 요소가 포함되는지는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유형화를 위한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① 정서감성전략 사용과 ② 정서감성전략 부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변수의 신뢰도 조사

변수값의 코딩작업은 변수에 따라서 복수의 코더들 간 의견이 일치하기 쉬운 유형화가 있을 수 있고, 의견 일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로인해 코더들 간의 교차검토와 상호검증을 통해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불일치의 최소화 이후 신뢰도를 확인한다. 신뢰도는 Krippendorff의 *Alpha*를 통해 검증하였다.⁹⁾ 본 연구는 전체 1,018 표본 중 무작위로 10%의 적정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훈련된 2명의 코더가 코딩을 진행했다. 검사 결과, 정책영역 1, 목표공중 0.98, 대상공간 0.96, 정책유형 I 0.98, 정책유형 II 0.89, 수단 I 0.98,

9) 이는 코더의 수, 코딩 범주 수, 코딩 데이터의 척도 유형, 결측치 존재 유무에 제한없이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1 - (\text{관찰된 불일치} / \text{기대된 불일치})$ 의 방식으로 산출된다.

수단Ⅱ 0.89, 수단Ⅲ 0.92, 의제설정 0.87, 목적 0.97, 전략Ⅰ 0.89, 전략Ⅱ 0.91, 감성소구전략 0.97, 위기대응전략 0.93로 조사되었다.

Table 3. Definition of Policy Communication Analysis Variables and Variable Values within Yuneum

변수	항목
윤음이 포함된 실록	OO실록 O권
임금	윤음의 주체임금
시기	조선전기, 중기 후기
윤음의 정책영역	① 국방(17, 1.7%) ② 교육(9, 0.9%) ③ 사상(12, 1.2%) ④ 인사(258, 25.3%) ⑤ 왕실(168, 16.5%) ⑥ 정치(50, 4.9%) ⑦ 사법(194, 19.1%) ⑧ 재정(88, 8.6%) ⑨ 천기(25, 2.5%) ⑩ 농업(9, 9%) ⑪ 풍속(29, 2.8%) ⑫ 외교(78, 7.7%)
윤음의 목표공중	① 왕실(54, 5.3%) ② 관료(700, 68.8%) ③ 유생(15, 1.5%) ④ 일반백성(249, 24.5%)
윤음의 대상공간	① 전국(213, 20.9%) ② 중앙(694, 68.2%) ③ 지방(111, 10.9%)
정책유형 I (Lowi, 1964)	① 분배정책(133, 13.1%) ② 재분배정책(50, 4.9%) ③ 규제정책(479, 47.1%) ④ 구성정책(34, 3.3%) ⑤ 기타(322, 31.6%)
정책유형 II (Wilson & Dilulio, 2001)	① 다수주의정책(251, 24.7%) ② 기업가정책(183, 18.0%) ③ 고객정책(110, 10.8%) ④ 이익집단정책(474, 46.6%)
정책수단 I (Vedung, 1998)	① 규제(459, 45.1%) ② 인센티브(208, 20.4%) ③ 설득(351, 34.5%)
정책수단 II (Schneider & Ingram, 1990)	① 권위(474, 46.6%) ② 인센티브(200, 19.6%) ③ 역량형성(9114, 11.2%) ④ 상징권고(224, 22.0%) ⑤ 학습(6, 0.6%)
정책수단 III (Hood, 1986)	① 정보매개(306, 30.1%) ② 권위(법, 규제)(581, 57.1%) ③ 자원(129, 12.7%) ④ 조직(2, 0.2%)
정책 의제 설정 과정 (Cobb et al., 1976)	① 동원모형(975, 95.8%) ② 공고화모형(43, 4.2%) ③ 외부주도모형(0.0%) ④ 내부집근모형(0.0%)
커뮤니케이션 목적	① 정보제공(15, 1.5%) ② 태도변화(490, 48.1%) ③ 행동유도(513, 50.4%)
커뮤니케이션 전략(주도성) I (Hutton, 1999)	① 사전추구적(411, 40.4%) ② 사후반응적(607, 59.6%)
커뮤니케이션 전략(실체성) II (Hutton, 1999)	① 인식개념중심적(283, 27.8%) ② 실체중심적(735, 72.2%)
커뮤니케이션 감성 소구 전략 (정서성)	① 정서감성전략사용(466, 45.8%) ② 정서감성전략부재(552, 54.2%)
커뮤니케이션 위기 대응 전략 (Coombs, 1999/2001)	① 방어전략(저책임)(342, 33.6%) ② 수용전략(고책임)(676, 66.4%)

Note. Adapted from Park et al. (2024).

5. 연구결과

1) 표본 빈도 및 변수별 교차분석

실록에 나타난 윤음의 정책 주제를 빈도와 비율로 분석한 결과, 인사 관련 내용이 258건 (25.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사법 194건(19.1%), 왕실 168건 (16.5%), 농업 90건(8.8%), 재정 88건(8.6%) 순으로 나타났다. 외교는 78건(7.7%), 정치는 50건(4.9%), 풍속은 29건(2.8%), 천기는 25건(2.5%)이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

항목으로는 사상 12건(1.2%), 교육 9건(0.9%), 국방 17건(1.7%)이 포함되었다. 전체 윤음의 총 건수는 1,018건이다.

윤음의 목표 공중 중 관료가 700건(68.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전체의 약 69%를 구성하였다. 그다음으로 일반백성이 249건(24.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왕실은 54건(5.3%)로 나타났다. 유생은 15건(1.5%)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 윤음이 대상으로 한 공간 중 중앙이 694회(68.2%), 전국이 213회(20.9%), 지방은 111회(10.9%)로 나타났다.

윤음의 정책유형 I (Lowi, 1964) 중 규제정책이 479건(47.1%)으로 가장 높고, 그 뒤로 기타가 322건(31.6%), 분배정책이 133건(13.1%), 재분배정책이 50건(4.9%), 구성정책이 34건(3.3%)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정책유형 II (Wilson & DiIulio, 2001) 변수에서 이익집단 정책이 474건(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수주의 정책은 251건(24.7%), 기업가정책은 183건(18.0%), 고객정책은 110건(10.8%)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수단 I (Vedung, 1998) 분류에서는 규제가 459건(45.1%)으로 가장 높았으며, 설득이 351건(34.5%), 인센티브가 208건(20.4%)으로 나타났고, 정책수단 II 분류에 따르면, 권위수단이 474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상징권고는 224건(22.0%), 인센티브는 200건(19.6%), 역량형성은 114건(11.2%), 학습은 6건(0.6%)이었다. 정책수단 III (Hood, 1986)에서는 권위가 581건(5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정보매개가 306건(30.1%), 재원이 129건(12.7%), 조직이 2건(0.2%)으로 나타났다. 정책 의제 설정 과정(Cobb et al., 1976) 모형 중 동원모형이 975건(95.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고화모형은 43건(4.2%)으로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 목적에서는 행동유도가 513건(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도변화는 490건(48.1%), 정보제공은 15건(1.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중 주도성 I (Hutton, 1999)에서는 사후반응이 607건(59.6%)으로 사전추구 411건(40.4%)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실체성 II (Hutton, 1999)에서는 실체중심이 735건(72.2%)으로 인식중심 283건(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감성 소구 전략에서는 감성부제가 552건(54.2%)로 감성활용 466건(45.8%)보다 높았다. 위기 대응 전략(Coombs, 1999/2001)에서는 수용전략이 676건(66.4%)로 방어전략 342건(33.6%)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교차분석 과정에서 변수값의 크기가 작은 변수값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 변수값과 합쳐 새로운 변수값으로 리코딩하였다. 즉, 영역 12개 변수값 중 교육, 사상, 정치를 하나로, 국방, 외교도 하나로 농업, 천기, 풍속도 합쳐 7개 변수값으로 수정하였고, 목표공중도 유생과 백성을 합쳐

3개 변수값으로, 정책수단Ⅱ도 학습을 상징권고로 합쳐 4개 변수값으로 정책수단Ⅲ도 조직을 권위에 합쳐 3개 변수값으로 조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문제 1 분석결과

조선시대 시기(전, 중, 후기)에 따른 윤음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통계적 유의미 차이 위주로 살펴보았다. 윤음의 정책 영역을 보면 조선 전기에는 국방·외교(53, 54.6%)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기에는 왕실(88, 22.3%), 인사(119, 30.2%) 그리고 후기에는 농업·천기·풍속(92, 17.5%), 사법(123, 23.3%), 재정(57, 10.8%)의 정책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chi^2 = 296.836$, $df = 12$, $p < .000$). 윤음의 목표공중별로 보면 전 > 중 > 후로 관료가 목표인 윤음이 많았고, 전 < 중 < 후기 일수록 일반백성·유생이 목표공중인 윤음이 많았다. 대상공간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전 < 중 < 후기 일수록 중앙보다 전국과 지방대상 윤음이 많았다. 정책유형 I 별로 보면, 구성정책관련 윤음은 전기에 가까울수록 재분배정책은 후기에 가까울수록 많았고($\chi^2 = 83.074$, $df = 8$, $p < .000$), 정책유형Ⅱ별로 보면, 다수주의(59, 60.8%), 이익집단 정책(18, 18.6%)은 전기에 많고, 기업가정책은 중기(105, 26.6%)에 가장 많았다. 정책수단 I, II, III 별로 보면, 규제, 권위, 권위·조직 수단 관련 윤음은 조선 중기에 설득, 상징권고·학습, 정보매개관련 정책수단 윤음은 조선전기에 많았다. 다음 윤음내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전략 별 시기를 보면, 전기에 사전추구전략, 감성활용전략, 방어위기전략 관련 윤음이 많았고, 사후반응전략, 감성부재전략의 윤음은 조선 후기에 많았으며, 위기대응수용전략은 조선 중기에 상대적으로 많았다(〈Table 4〉 참조).

Table 4. Differences in Yuneum Policy Communication by Periods

		시기			전체	χ^2			시기			전체	χ^2
		전기	중기	후기					전기	중기	후기		
정 책 정 의	교육·사상 정치	1 (1.0%)	28 (7.1%)	42 (8.0%)	71 (7.0%)	$\chi^2 = 296.836,$ $df = 12,$ $p < .000$	수 단 I	규제	17 (17.5%)	232 (58.9%)	210 (39.8%)	459 (45.1%)	$\chi^2 = 85.661,$ $df = 4,$ $p < .000$
	국방·외교	53 (54.6%)	23 (5.8%)	19 (3.6%)	95 (9.3%)			설득	65 (67.0%)	92 (23.4%)	194 (36.8%)	351 (34.5%)	
	농업·천기·풍속	4 (4.1%)	48 (12.2%)	92 (17.5%)	144 (14.1%)			인센티브	15 (15.5%)	70 (17.8%)	123 (23.3%)	208 (20.4%)	
	사법	13 (13.4%)	58 (14.7%)	123 (23.3%)	194 (19.1%)		수 단 II	권위	21 (21.6%)	219 (55.6%)	234 (44.4%)	474 (46.6%)	$\chi^2 = 113.708,$ $df = 6,$ $p < .000$
	왕실	9 (9.3%)	88 (22.3%)	71 (13.5%)	168 (16.5%)			상징권고· 학습	59 (60.8%)	79 (20.1%)	92 (17.5%)	230 (22.6%)	
	인사	16 (16.5%)	119 (30.2%)	123 (23.3%)	258 (25.3%)			역량형성	3 (3.1%)	31 (7.9%)	80 (15.2%)	114 (11.2%)	
	재정	1 (1.0%)	30 (7.6%)	57 (10.8%)	88 (8.6%)			인센티브	14 (14.4%)	65 (16.5%)	121 (23.0%)	200 (19.6%)	
대 내외부관계	관료	83 (85.6%)	304 (77.2%)	313 (59.4%)	700 (68.8%)	$\chi^2 = 61.738,$ $df = 4,$ $p < .000$	수 단 III	권위 조직	30 (30.9%)	282 (71.6%)	271 (51.4%)	583 (57.3%)	$\chi^2 = 78.662,$ $df = 4,$ $p < .000$
	왕실	3 (3.1%)	27 (6.9%)	24 (4.6%)	54 (5.3%)			재원	11 (11.3%)	33 (8.4%)	85 (16.1%)	129 (12.7%)	
	일반백성· 유생	11 (11.3%)	63 (16.0%)	190 (36.1%)	264 (25.9%)			정보매개	56 (57.7%)	79 (20.1%)	171 (32.4%)	306 (30.1%)	
대 상 구 간	전국	8 (8.2%)	78 (19.8%)	127 (24.1%)	213 (20.9%)	$\chi^2 = 50.572,$ $df = 4,$ $p < .000$	전 략 I	사전추구	56 (57.7%)	176 (44.7%)	179 (34.0%)	411 (40.4%)	$\chi^2 = 24.151,$ $df = 2,$ $p < .000$
	중앙	81 (83.5%)	298 (75.6%)	315 (59.8%)	694 (68.2%)			사후반응	41 (42.3%)	218 (55.3%)	348 (66.0%)	607 (59.6%)	

I 연속 정책	지방	8 (8.2%)	18 (4.6%)	85 (16.1%)	111 (10.9%)	$\chi^2 = 83.074,$ $df = 8,$ $p < .000$	감성소구 전략 위 기 대 응 전략	감성부재	19 (19.6%)	219 (55.6%)	314 (59.6%)	552 (54.2%)	$\chi^2 = 53.272,$ $df = 2,$ $p < .000$
	구성정책	6 (6.2%)	10 (2.5%)	18 (3.4%)	34 (3.3%)			감성활용	78 (80.4%)	175 (44.4%)	213 (40.4%)	466 (45.8%)	
	규제정책	17 (17.5%)	230 (58.4%)	232 (44.0%)	479 (47.1%)			방어전략	63 (64.9%)	76 (19.3%)	203 (38.5%)	342 (33.6%)	$\chi^2 = 84.617,$ $df = 2,$ $p < .000$
	기타	61 (62.9%)	86 (21.8%)	175 (33.2%)	322 (31.6%)			수용전략	34 (35.1%)	318 (80.7%)	324 (61.5%)	676 (66.4%)	
	분배정책	12 (12.4%)	54 (13.7%)	67 (12.7%)	133 (13.1%)			전체	97 (100%)	394 (100%)	527 (100%)	1018 (100%)	
	재분배정책	1 (1.0%)	14 (3.6%)	35 (6.6%)	50 (4.9%)								
II 연속 정책	고객정책	17 (17.5%)	18 (4.6%)	75 (14.2%)	110 (10.8%)	$\chi^2 = 159.852,$ $df = 6,$ $p < .000$							
	기업가정책	3 (3.1%)	105 (26.6%)	75 (14.2%)	183 (18.0%)								
	다수주의	59 (60.8%)	48 (12.2%)	144 (27.3%)	251 (24.7%)								
	이익집단	18 (18.6%)	223 (56.6%)	233 (44.2%)	474 (46.6%)								

3)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윤음을 가장 많이 내렸던 임금 5명(세종, 선조, 영조, 정조, 고종)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세종시기에는 국방·외교, 선조는 인사, 영조와 정조는 재정, 그리고 고종시기에는 농업·친가·풍속과 사법 관련 정책 윤음의 배포가 많았다($\chi^2 = 299.230$, $df = 24$, $p < .000$). 목표공중은 역시 후기에 가까울수록 일반백성·유생 대상이 많아졌고, 대상공간도 후기에 가까울수록 중앙은 감소하고 지방과 전국대상이 증가하였다. 정책유형 I 별로 보면, 세종시기에 규제정책 윤음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고, 정책유형 II 별로 보면, 세종시기에 고객정책과 다수주의정책 윤음이 많았고, 선조시기에 이익집단정책 윤음이 영조시기에 기업가정책 관련 윤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책수단 I, II, III 별로 보면, 세종시기에 규제가 가장 적고 설득, 상징 권고·학습, 정보매개가 가장 많았다. 규제, 권위수단, 권위·조직 수단이 가장 많은 시기는 선조시기이고 고종시기에는 인센티브 수단이 가장 많았다. 다음 윤음내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전략 별 시기를 보면, 세종시기에 사전추구전략, 감성활용전략, 방어위기전략 관련 윤음이 많았고, 선조시기에 위기수용전략이 많았으며, 고종시기에 사후반응전략, 감성부재전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Table 5〉 참조).

Table 5. Differences in Yuneum Policy Communication by King

		입금					전체	χ^2	입금					전체	χ^2			
		세종	선조	영조	정조	고종			세종	선조	영조	정조	고종					
정 책 영 역	교육·사상 정치	1 (3.1%)	5 (10.2%)	9 (4.6%)	24 (9.2%)	14 (9.0%)	53 (7.6%)	$\chi^2 =$ 293.230, $df = 24,$ $p < .000$	수 단 I	규제	3 (9.4%)	28 (57.1%)	109 (55.6%)	114 (43.5%)	50 (32.3%)	304 (43.8%)	$\chi^2 =$ 55.062, $df = 8,$ $p < .000$	
	국방·외교	21 (65.6%)	8 (16.3%)	4 (2.0%)	14 (5.3%)	0 (0.0%)	47 (6.8%)			실득	25 (78.1%)	15 (30.6%)	45 (23.0%)	90 (34.4%)	60 (38.7%)	235 (33.9%)		
	농업·천가· 풍속	0 (0.0%)	0 (0.0%)	39 (19.9%)	29 (11.1%)	47 (30.3%)	115 (16.6%)			인센티브	4 (12.5%)	6 (12.2%)	42 (21.4%)	58 (22.1%)	45 (29.0%)	155 (22.3%)		
	사법	1 (3.1%)	5 (10.2%)	29 (14.8%)	44 (16.8%)	49 (31.6%)	128 (18.4%)		수 단 II	권위	5 (15.6%)	35 (71.4%)	95 (48.5%)	124 (47.3%)	60 (38.7%)	319 (46.0%)		$\chi^2 =$ 96.266, $df = 12,$ $p < .000$
	왕실	3 (9.4%)	10 (20.4%)	43 (21.9%)	34 (13.0%)	15 (9.7%)	105 (15.1%)			상징권과 학습	22 (68.8%)	10 (20.4%)	31 (15.8%)	50 (19.1%)	14 (9.0%)	127 (18.3%)		
	인사	6 (18.8%)	19 (38.8%)	49 (25.0%)	78 (29.8%)	24 (15.5%)	176 (25.4%)			역량형성	2 (6.3%)	1 (2.0%)	29 (14.8%)	31 (11.8%)	36 (23.2%)	99 (14.3%)		
	재정	0 (0.0%)	2 (4.1%)	23 (11.7%)	39 (14.9%)	6 (3.9%)	70 (10.1%)			인센티브	3 (9.4%)	3 (6.1%)	41 (20.9%)	57 (21.8%)	45 (29.0%)	149 (21.5%)		
비 의 영 역	관료	28 (87.5%)	43 (87.8%)	134 (68.4%)	179 (68.3%)	67 (43.2%)	451 (65.0%)	$\chi^2 =$ 67.227, $df = 8,$ $p < .000$	수 단 III	권위·조직	8 (25.0%)	38 (77.6%)	123 (62.8%)	130 (49.6%)	78 (50.3%)	377 (54.3%)	$\chi^2 =$ 39.483, $df = 8,$ $p < .000$	
	왕실	1 (3.1%)	5 (10.2%)	9 (4.6%)	5 (1.9%)	8 (5.2%)	28 (4.0%)			자원	3 (9.4%)	3 (6.1%)	27 (13.8%)	48 (18.3%)	25 (16.1%)	106 (15.3%)		

	일반백성·유생	3 (9.4%)	1 (2.0%)	53 (27.0%)	78 (29.8%)	80 (51.6%)	215 (31.0%)			정보매개	21 (65.6%)	8 (16.3%)	46 (23.5%)	84 (32.1%)	52 (33.5%)	211 (30.4%)	
대상공간	전국	1 (3.1%)	4 (8.2%)	45 (23.0%)	47 (17.9%)	61 (39.4%)	158 (22.8%)	$\chi^2 = 71.814, df = 8, p < .000$	전략 I	사전추구	21 (65.6%)	16 (32.7%)	127 (64.8%)	116 (44.3%)	44 (28.4%)	324 (46.7%)	$\chi^2 = 55.779, df = 4, p < .000$
	중앙	30 (93.8%)	43 (87.8%)	135 (68.9%)	176 (67.2%)	62 (40.0%)	446 (64.3%)			사후반응	11 (34.4%)	33 (67.3%)	69 (35.2%)	146 (55.7%)	111 (71.6%)	370 (53.3%)	
	지방	1 (3.1%)	2 (4.1%)	16 (8.2%)	39 (14.9%)	32 (20.6%)	90 (13.0%)		감성소구전략	감성부재	5 (15.6%)	30 (61.2%)	118 (60.2%)	149 (56.9%)	105 (67.7%)	407 (58.6%)	$\chi^2 = 30.379, df = 4, p < .000$
정책유형 I	구성정책	2 (6.3%)	4 (8.2%)	4 (2.0%)	14 (5.3%)	2 (1.3%)	26 (3.7%)	감성활용		27 (84.4%)	19 (38.8%)	78 (39.8%)	113 (43.1%)	50 (32.3%)	287 (41.4%)		
	규제정책	3 (9.4%)	29 (59.2%)	111 (56.6%)	122 (46.6%)	62 (40.0%)	327 (47.1%)	위기대응전략	방어전략	23 (71.9%)	6 (12.2%)	53 (27.0%)	101 (38.5%)	67 (43.2%)	250 (36.0%)	$\chi^2 = 40.945, df = 4, p < .000$	
	기타	23 (71.9%)	6 (12.2%)	45 (23.0%)	82 (31.3%)	51 (32.9%)	207 (29.8%)		수용전략	9 (28.1%)	43 (87.8%)	143 (73.0%)	161 (61.5%)	88 (56.8%)	444 (64.0%)		
	분배정책	4 (12.5%)	10 (20.4%)	27 (13.8%)	31 (11.8%)	28 (18.1%)	100 (14.4%)	전체	32 (100%)	49 (100%)	196 (100%)	262 (100%)	155 (100%)	694 (100%)			
	재분배정책	0 (0.0%)	0 (0.0%)	9 (4.6%)	13 (5.0%)	12 (7.7%)	34 (4.9%)										
정책	고객정책	6 (18.8%)	0 (0.0%)	12 (6.1%)	41 (15.6%)	22 (14.2%)	81 (11.7%)										

유형 II	기업가 정책	0 (0.0%)	8 (16.3%)	64 (32.7%)	43 (16.4%)	19 (12.3%)	134 (19.3%)	df = 12, p < .000	
	다수주의	22 (68.8%)	7 (14.3%)	29 (14.8%)	61 (23.3%)	60 (38.7%)	179 (25.8%)		
	이익집단	4 (12.5%)	34 (69.4%)	91 (46.4%)	117 (44.7%)	54 (34.8%)	300 (43.2%)		

4)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윤음의 목표공중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국방·외교, 인사 영역은 관료, 농업·천기·풍속과 재정은 일반백성 및 유생이 목표공중인 윤음이 많았다. 역시 대상공간이 중앙인 경우 목표공중은 관료였고, 전국인 경우 일반백성 및 유생이었다. 다음 정책유형별로 살펴보면 관료가 목표공중은 윤음에 규제정책, 이익집단정책 관련이 많았고, 일반백성·유생이 목표공중인 윤음에 재분배정책, 다수주의정책 관련 윤음이 많았다. 정책수단 I, II, III 별로 보면, 목표공중인 관료가 윤음에 규제, 권위, 권위·조직 수단이 많았고, 동원모형의 의제설정이 많았으며, 일반백성·유생이 목표공중인 윤음에서 인센티브, 역량형성, 자원, 정보매개 등의 정책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공교회모형의 의제설정유형이 많았다. 다음 윤음내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전략 별 목표공중을 보면, 관료인 경우 사후반응전략, 인식중심전략, 위기대응수용전략이 많았고, 왕실이 목표공중인 윤음에 감성활용전략과 태도변화목표가 많았으며, 일반백성·유생이 목표공중인 윤음에서 사전추구전략, 실체중심전략, 위기대응방어전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Table 6〉 참조).

Table 6. Differences in Yuneum Policy Communication by Target Audience

		목표공중			전체	χ^2		목표공중			전체	χ^2	
		관료	왕실	일반백성·유생				관료	왕실	일반백성·유생			
전 책 의 의 의	교육 사상 정치	54 (7.7%)	0 (0.0%)	17 (6.4%)	71 (7.0%)	$\chi^2 =$ 676.892, $df = 12,$ $p < .000$	수 단 II	권위	391 (55.9%)	11 (20.4%)	72 (27.3%)	474 (46.6%)	$\chi^2 =$ 309.940, $df = 6,$ $p < .000$
	국방·외교	94 (13.4%)	0 (0.0%)	1 (0.4%)	95 (9.3%)			상징권고·학습	173 (24.7%)	41 (75.9%)	16 (6.1%)	230 (22.6%)	
	농업·천기· 풍속	44 (6.3%)	0 (0.0%)	100 (37.9%)	144 (14.1%)			역랑형성	36 (5.1%)	0 (0.0%)	78 (29.5%)	114 (11.2%)	
	사법	143 (20.4%)	0 (0.0%)	51 (19.3%)	194 (19.1%)			인센티브	100 (14.3%)	2 (3.7%)	98 (37.1%)	200 (19.6%)	
	왕실	104 (14.9%)	53 (98.1%)	11 (4.2%)	168 (16.5%)		수 단 III	권위 조직	442 (63.1%)	22 (40.7%)	119 (45.1%)	583 (57.3%)	$\chi^2 =$ 54.091, $df = 4,$ $p < .000$
	인사	246 (35.1%)	1 (1.9%)	11 (4.2%)	258 (25.3%)			재원	77 (11.0%)	0 (0.0%)	52 (19.7%)	129 (12.7%)	
	재정	15 (2.1%)	0 (0.0%)	73 (27.7%)	88 (8.6%)			정보매개	181 (25.9%)	32 (59.3%)	93 (35.2%)	306 (30.1%)	
대 내 외 국 간	전국	50 (7.1%)	1 (1.9%)	162 (61.4%)	213 (20.9%)	$\chi^2 =$ 570.314, $df = 4,$ $p < .000$	의 제 설 정	공고화 모형	8 (1.1%)	0 (0.0%)	35 (13.3%)	43 (4.2%)	$\chi^2 =$ 72.061, $df = 2,$ $p < .000$
	중앙	616 (88.0%)	53 (98.1%)	25 (9.5%)	694 (68.2%)			동원모형	692 (98.9%)	54 (100%)	229 (86.7%)	975 (95.8%)	
	지방	34 (4.9%)	0 (0.0%)	77 (29.2%)	111 (10.9%)		목 적	정보제공	13 (1.9%)	0 (0.0%)	2 (0.8%)	15 (1.5%)	$\chi^2 =$ 22.300, $df = 4,$ $p < .000$
정 책	구성정책	22 (3.1%)	2 (3.7%)	10 (3.8%)	34 (3.3%)	태도변화		329 (47.0%)	42 (77.8%)	119 (45.1%)	490 (48.1%)		

행위 I	규제정책	367 (52.4%)	12 (22.2%)	100 (37.9%)	479 (47.1%)	$\chi^2 = 175.556,$ $df = 8,$ $p < .000$	행동유도	358 (51.1%)	12 (22.2%)	143 (54.2%)	513 (50.4%)	$\chi^2 = 78.544,$ $df = 2,$ $p < .000$		
	기타	193 (27.6%)	37 (68.5%)	92 (34.8%)	322 (31.6%)			전략 I	사전추구	234 (33.4%)	11 (20.4%)		166 (62.9%)	411 (40.4%)
	분배정책	114 (16.3%)	3 (5.6%)	16 (6.1%)	133 (13.1%)			사후반응	466 (66.6%)	43 (79.6%)	98 (37.1%)		607 (59.6%)	
	재분배 정책	4 (0.6%)	0 (0.0%)	46 (17.4%)	50 (4.9%)			전략 II	실체중심	487 (69.6%)	12 (22.2%)		236 (89.4%)	735 (72.2%)
전 책 II	고객정책	94 (13.4%)	1 (1.9%)	15 (5.7%)	110 (10.8%)	$\chi^2 = 179.986,$ $df = 6,$ $p < .000$	인식중심	213 (30.4%)	42 (77.8%)	28 (10.6%)	283 (27.8%)	$\chi^2 = 108.494,$ $df = 2,$ $p < .000$		
	기업가 정책	121 (17.3%)	1 (1.9%)	61 (23.1%)	183 (18.0%)			감성소 구 전 략	감성부재	401 (57.3%)	9 (16.7%)		142 (53.8%)	552 (54.2%)
	다수주의	123 (17.6%)	0 (0.0%)	128 (48.5%)	251 (24.7%)		감성활용	299 (42.7%)	45 (83.3%)	122 (46.2%)	466 (45.8%)	$\chi^2 = 33.351,$ $df = 2,$ $p < .000$		
	이익집단	362 (51.7%)	52 (96.3%)	60 (22.7%)	474 (46.6%)		위 기 대 응 전 략	방어전략	236 (33.7%)	4 (7.4%)	102 (38.6%)		342 (33.6%)	
수 단 I	규제	371 (53.0%)	17 (31.5%)	71 (26.9%)	459 (45.1%)	$\chi^2 = 105.549,$ $df = 4,$ $p < .000$	수용전략	464 (66.3%)	50 (92.6%)	162 (61.4%)	676 (66.4%)	$\chi^2 = 19.612,$ $df = 2,$ $p < .000$		
	선택	224 (32.0%)	35 (64.8%)	92 (34.8%)	351 (34.5%)			전체	700 (100%)	54 (100%)	264 (100%)		1018 (100%)	
	인센 티브	105 (15.0%)	2 (3.7%)	101 (38.3%)	208 (20.4%)		(This section of the table is crossed out with a large X)							

5)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

윤음의 대상공간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 차이를 살펴보면, 중앙이 대상공간인 윤음에 국방외교, 왕실, 인사 영역이, 전국이 대상공간인 윤음에 농업·친가·풍속 영역이 지방에는 재정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책유형별로 보면 규제정책, 이익집단정책은 중앙에, 구성정책과 분배, 재분배정책, 고객정책은 지방이 대상인 윤음에 많았다. 다음 정책수단 I, II, III 별로 보면, 중앙은 규제, 전국은 설득, 지방은 인센티브 수단이 많았다. 또한 중앙이 대상공간인 윤음에 권위, 권위·조직 관련 정책수단과 동원 의제설정모형이 많았고, 전국이 대상공간인 윤음에 설득, 역량형성, 정보매개 정책수단이 많았다. 지방은 인센티브, 자원 관련 정책 수단이 많았고, 공고화모형의 의제설정 정책 과정이 많았다. 윤음내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전략 별 대상공간을 보면, 전국대상 윤음은 행동유도, 사전추구전략 관련이 많았고, 중앙대상은 사후반응전략과 인식증심 전략이 많았으며 지방은 태도변화 목적인 전략이 많았다(〈Table 7〉 참조).

Table 7. Differences in Yuneum Policy Communication by Target Space

		대상공간			전체	X ²	대상공간				전체	X ²		
		전국	중앙	지방			전국	중앙	지방					
정책영역	교육 사상 정치	16 (7.5%)	51 (7.3%)	4 (3.6%)	71 (7.0%)	수단 II	권위	62 (29.1%)	378 (54.5%)	34 (30.6%)	474 (46.6%)	X ² = 368.285, df = 6, p < .000		
	국방·외교	2 (0.9%)	88 (12.7%)	5 (4.5%)	95 (9.3%)		상징권고· 학습	22 (10.3%)	202 (29.1%)	6 (5.4%)	230 (22.6%)			
	농업·친가·풍속	104 (48.8%)	22 (3.2%)	18 (16.2%)	144 (14.1%)		역량형성	82 (38.5%)	29 (4.2%)	3 (2.7%)	114 (11.2%)			
	사법	52 (24.4%)	130 (18.7%)	12 (10.8%)	194 (19.1%)		인센티브	47 (22.1%)	85 (12.2%)	68 (61.3%)	200 (19.6%)			
	왕실	16 (7.5%)	150 (21.6%)	2 (1.8%)	168 (16.5%)		수단 III	권위·조직	109 (51.2%)	430 (62.0%)	44 (39.6%)		583 (57.3%)	X ² = 227.137, df = 4, p < .000
	인사	7 (3.3%)	237 (34.1%)	14 (12.6%)	258 (25.3%)			자원	4 (1.9%)	65 (9.4%)	60 (54.1%)		129 (12.7%)	
	재정	16 (7.5%)	16 (2.3%)	56 (50.5%)	88 (8.6%)			정보매개	100 (46.9%)	199 (28.7%)	7 (6.3%)		306 (30.1%)	
정책유형 I	구성정책	4 (1.9%)	19 (2.7%)	11 (9.9%)	34 (3.3%)	의제설정	공고화모형	9 (4.2%)	11 (1.6%)	23 (20.7%)	43 (4.2%)	X ² = 86.616, df = 2, p < .000		
	규제정책	88 (41.3%)	356 (51.3%)	35 (31.5%)	479 (47.1%)		동원모형	204 (95.8%)	683 (98.4%)	88 (79.3%)	975 (95.8%)			
	기타	100 (46.9%)	216 (31.1%)	6 (5.4%)	322 (31.6%)	목적	정보제공	1 (0.5%)	13 (1.9%)	1 (0.9%)	15 (1.5%)	X ² = 52.034,		

	분배정책	13 (6.1%)	99 (14.3%)	21 (18.9%)	133 (13.1%)		태도변화	65 (30.5%)	348 (50.1%)	77 (69.4%)	490 (48.1%)	$df = 4,$ $p < .000$			
	재분배정책	8 (3.8%)	4 (0.6%)	38 (34.2%)	50 (4.9%)		행동유도	147 (69.0%)	333 (48.0%)	33 (29.7%)	513 (50.4%)				
전략 II	고객정책	0 (0.0%)	84 (12.1%)	26 (23.4%)	110 (10.8%)	$\chi^2 =$ 197.473, $df = 6,$ $p < .000$	전략 I	사전추구	130 (61.0%)	228 (32.9%)	53 (47.7%)	411 (40.4%)	$\chi^2 =$ 56.576, $df = 2,$ $p < .000$		
	기업가정책	47 (22.1%)	101 (14.6%)	35 (31.5%)	183 (18.0%)			사후반응	83 (39.0%)	466 (67.1%)	58 (52.3%)	607 (59.6%)			
	다수주의	111 (52.1%)	112 (16.1%)	28 (25.2%)	251 (24.7%)		전략 II	실체중심	184 (86.4%)	460 (66.3%)	91 (82.0%)	735 (72.2%)	$\chi^2 =$ 38.753, $df = 2,$ $p < .000$		
	이익집단	55 (25.8%)	397 (57.2%)	22 (19.8%)	474 (46.6%)			인식중심	29 (13.6%)	234 (33.7%)	20 (18.0%)	283 (27.8%)			
수단 I	규제	67 (31.5%)	358 (51.6%)	34 (30.6%)	459 (45.1%)	$\chi^2 =$ 172.215, $df = 4,$ $p < .000$	전체					213 (100%)	694 (100%)	111 (100%)	1018 (100%)
	선택	99 (46.5%)	245 (35.3%)	7 (6.3%)	351 (34.5%)		X								
	인센티브	47 (22.1%)	91 (13.1%)	70 (63.1%)	208 (20.4%)		X								

6) 연구문제 5의 분석결과

윤음의 정책영역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사상·정치 관련 윤음에 규제, 권위 정책과 감성부재, 인식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국방·외교 윤음에서는 다수주의 정책과 설득, 상징권고·학습, 정보매개 등의 정책수단 그리고 행동유도 목적과 사전추구, 감성활용, 위기방어대응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많이 보였다. 농업·천기·풍속 관련 윤음에서는 역량형성 정책수단이 많았고, 사법 관련 윤음에서는 규제정책, 권위·조직의 정책수단과 사후반응, 위기대응수용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왕실 관련에서는 이익집단형 정책이 많았고, 인사 관련에서는 분배, 고객정책이 많았으며, 재정 관련에서는 기업가 정책유형, 인센티브 정책수단, 공고화 의제설정 모형, 실체중심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많았다 (<Table 8> 참조).

Table 8. Differences in Yuneum Policy Communication by Policy Sector

		영역							전체	χ^2
		교육 사상 정치	국방 외교	농업 천가 풍속	사법	왕실	인사	재정		
정책유형 I	구성정책	2 (2.8%)	6 (6.3%)	0 (0.0%)	9 (4.6%)	5 (3.0%)	3 (1.2%)	9 (10.2%)	34 (3.3%)	$\chi^2 =$ 916.671, $df = 24,$ $p < .000$
	규제정책	45 (63.4%)	10 (10.5%)	27 (18.8%)	182 (93.8%)	72 (42.9%)	111 (43.0%)	32 (36.4%)	479 (47.1%)	
	기타	18 (25.4%)	77 (81.1%)	100 (69.4%)	0 (0.0%)	78 (46.4%)	48 (18.6%)	1 (1.1%)	322 (31.6%)	
	분배정책	6 (8.5%)	2 (2.1%)	8 (5.6%)	2 (1.0%)	13 (7.7%)	96 (37.2%)	6 (6.8%)	133 (13.1%)	
	재분배 정책	0 (0.0%)	0 (0.0%)	9 (6.3%)	1 (0.5%)	0 (0.0%)	0 (0.0%)	40 (45.5%)	50 (4.9%)	
정책유형 II	고객정책	0 (0.0%)	0 (0.0%)	8 (5.6%)	2 (1.0%)	2 (1.2%)	89 (34.5%)	9 (10.2%)	110 (10.8%)	$\chi^2 =$ 726.930, $df = 18,$ $p < .000$
	기업가 정책	13 (18.3%)	6 (6.3%)	33 (22.9%)	36 (18.6%)	29 (17.3%)	26 (10.1%)	40 (45.5%)	183 (18.0%)	
	다수주의	12 (16.9%)	81 (85.3%)	89 (61.8%)	29 (14.9%)	2 (1.2%)	7 (2.7%)	31 (35.2%)	251 (24.7%)	
	이익집단	46 (64.8%)	8 (8.4%)	14 (9.7%)	127 (65.5%)	135 (80.4%)	136 (52.7%)	8 (9.1%)	474 (46.6%)	
수단 I	규제	44 (62.0%)	16 (16.8%)	29 (20.1%)	147 (75.8%)	83 (49.4%)	101 (39.1%)	39 (44.3%)	459 (45.1%)	$\chi^2 =$ 415.966, $df = 12,$ $p < .000$
	설득	23 (32.4%)	78 (82.1%)	99 (68.8%)	9 (4.6%)	76 (45.2%)	65 (25.2%)	1 (1.1%)	351 (34.5%)	
	인센티브	4 (5.6%)	1 (1.1%)	16 (11.1%)	38 (19.6%)	9 (5.4%)	92 (35.7%)	48 (54.5%)	208 (20.4%)	

수단II	권위	46 (64.8%)	16 (16.8%)	24 (16.7%)	153 (78.9%)	77 (45.8%)	117 (45.3%)	41 (46.6%)	474 (46.6%)	$\chi^2 = 866.947,$ $df = 18,$ $p < .000$
	상징권고 학습	15 (21.1%)	76 (80.0%)	15 (10.4%)	3 (1.5%)	81 (48.2%)	39 (15.1%)	1 (1.1%)	230 (22.6%)	
	역량형성	7 (9.9%)	2 (2.1%)	89 (61.8%)	0 (0.0%)	1 (0.6%)	15 (5.8%)	0 (0.0%)	114 (11.2%)	
	인센티브	3 (4.2%)	1 (1.1%)	16 (11.1%)	38 (19.6%)	9 (5.4%)	87 (33.7%)	46 (52.3%)	200 (19.6%)	
수단III	권위 조직	47 (66.2%)	15 (15.8%)	34 (23.6%)	185 (95.4%)	102 (60.7%)	157 (60.9%)	43 (48.9%)	583 (57.3%)	$\chi^2 = 576.417,$ $df = 12,$ $p < .000$
	재원	0 (0.0%)	1 (1.1%)	12 (8.3%)	1 (0.5%)	0 (0.0%)	71 (27.5%)	44 (50.0%)	129 (12.7%)	
	정보매개	24 (33.8%)	79 (83.2%)	98 (68.1%)	8 (4.1%)	66 (39.3%)	30 (11.6%)	1 (1.1%)	306 (30.1%)	
의제설정	공고화 모형	0 (0.0%)	1 (1.1%)	10 (6.9%)	5 (2.6%)	0 (0.0%)	0 (0.0%)	27 (30.7%)	43 (4.2%)	$\chi^2 = 180.485,$ $df = 6,$ $p < .000$
	동원모형	71 (100%)	94 (98.9%)	134 (93.1%)	189 (97.4%)	168 (100%)	258 (100%)	61 (69.3%)	975 (95.8%)	
목적	정보제공	0 (0.0%)	1 (1.1%)	0 (0.0%)	0 (0.0%)	1 (0.6%)	12 (4.7%)	1 (1.1%)	15 (1.5%)	$\chi^2 = 181.987,$ $df = 12,$ $p < .000$
	태도변화	31 (43.7%)	5 (5.3%)	36 (25.0%)	94 (48.5%)	110 (65.5%)	155 (60.1%)	59 (67.0%)	490 (48.1%)	
	행동유도	40 (56.3%)	89 (93.7%)	108 (75.0%)	100 (51.5%)	57 (33.9%)	91 (35.3%)	28 (31.8%)	513 (50.4%)	
전략 I	사전추구	18 (25.4%)	88 (92.6%)	98 (68.1%)	32 (16.5%)	60 (35.7%)	52 (20.2%)	63 (71.6%)	411 (40.4%)	$\chi^2 = 287.162,$ $df = 6,$ $p < .000$
	사후반응	53 (74.6%)	7 (7.4%)	46 (31.9%)	162 (83.5%)	108 (64.3%)	206 (79.8%)	25 (28.4%)	607 (59.6%)	

전략II	실체중심	38 (53.5%)	92 (96.8%)	119 (82.6%)	179 (92.3%)	80 (47.6%)	141 (54.7%)	86 (97.7%)	735 (72.2%)	$\chi^2 = 206.556,$ $df = 6,$ $p < .000$
	인식중심	33 (46.5%)	3 (3.2%)	25 (17.4%)	15 (7.7%)	88 (52.4%)	117 (45.3%)	2 (2.3%)	283 (27.8%)	
감성소구 전략	감성부재	49 (69.0%)	18 (18.9%)	99 (68.8%)	144 (74.2%)	52 (31.0%)	146 (56.6%)	44 (50.0%)	552 (54.2%)	$\chi^2 = 135.268,$ $df = 6,$ $p < .000$
	감성활용	22 (31.0%)	77 (81.1%)	45 (31.3%)	50 (25.8%)	116 (69.0%)	112 (43.4%)	44 (50.0%)	466 (45.8%)	
위기대응 전략	방어전략	17 (23.9%)	82 (86.3%)	78 (54.2%)	20 (10.3%)	24 (14.3%)	95 (36.8%)	26 (29.5%)	342 (33.6%)	$\chi^2 = 225.724,$ $df = 6,$ $p < .000$
	수용전략	54 (76.1%)	13 (13.7%)	66 (45.8%)	174 (89.7%)	144 (85.7%)	163 (63.2%)	62 (70.5%)	676 (66.4%)	
전체		71 (100%)	95 (100%)	144 (100%)	194 (100%)	168 (100%)	258 (100%)	88 (100%)	1018 (100%)	

7) 연구문제 6의 분석결과

윤음의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고객정책이자 분배정책인 정책의 윤음이 많았고, 기업가정책이자 재분배정책인 윤음내용이 많았다. 상식적이지만 권위를 수단으로 한 규제정책과 인센티브와 재원을 수단으로 한 분배와 재분배정책 관련 윤음이 많았다. 규제, 권위수단의 이익집단정책, 설득, 정보매개, 상징권고·학습 수단의 다수주의정책, 인센티브와 재원수단의 고객정책이 많았다. 또한 동원의제실정모형과 이익집단정책의 교집합과 공고화모형과 재분배정책의 교집합이 많았다. 구성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행동유도목적에 사전추구, 감성부재, 위기수용전략 성격이 많았고, 규제정책 역시 행동유도목적에 많았다. 분배정책은 태도변화목적, 사후반응, 위기방어전략적인 성격이 많았다. 재분배정책은 실체중심, 감성활용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고객정책은 태도변화목적, 사후반응, 인식중심, 위기방어전략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았고, 다수주의정책은 행동유도목적, 사전추구, 실체중심 위기방어전략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았다. 기업가정책과 이익집단정책은 위기수용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Table 9〉 참조).

Table 9. Differences in Yuneum Policy Communication by Policy Type

		정책유형 I					전체	χ^2		정책유형 II					전체	χ^2		
		구성 정책	규제 정책	기타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기타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정책유형 II	고객 정책	0 (0.0%)	4 (0.8%)	25 (7.8%)	67 (50.4%)	14 (28.0%)	110 (10.8%)	$\chi^2 = 523.177, df = 12, p < .000$	의제 설정	광고화 모형	1 (2.9%)	32 (6.7%)	1 (0.3%)	1 (0.8%)	8 (16.0%)	43 (4.2%)	$\chi^2 = 40.576, df = 4, p < .000$	
	기업가 정책	17 (50.0%)	89 (18.6%)	39 (12.1%)	20 (15.0%)	18 (36.0%)	183 (18.0%)			동원 모형	33 (97.1%)	447 (93.3%)	321 (99.7%)	132 (99.2%)	42 (84.0%)	975 (95.8%)		
	다수 주의	3 (8.8%)	66 (13.8%)	164 (50.9%)	3 (2.3%)	15 (30.0%)	251 (24.7%)		목적	정보 제공	0 (0.0%)	0 (0.0%)	15 (4.7%)	0 (0.0%)	0 (0.0%)	15 (1.5%)		$\chi^2 = 138.364, df = 8, p < .000$
	이익 집단	14 (41.2%)	320 (66.8%)	94 (29.2%)	43 (32.3%)	3 (6.0%)	474 (46.6%)			태도 변화	16 (47.1%)	230 (48.0%)	98 (30.4%)	107 (80.5%)	39 (78.0%)	490 (48.1%)		
수단 I	규제	17 (50.0%)	413 (86.2%)	11 (3.4%)	12 (9.0%)	6 (12.0%)	459 (45.1%)	$\chi^2 = 1353.863, df = 8, p < .000$	전략 I	행동 유도	18 (52.9%)	249 (52.0%)	209 (64.9%)	26 (19.5%)	11 (22.0%)	513 (50.4%)		
	설득	8 (23.5%)	26 (5.4%)	309 (96.0%)	8 (6.0%)	0 (0.0%)	351 (34.5%)			사전 추구	24 (70.6%)	125 (26.1%)	206 (64.0%)	30 (22.6%)	26 (52.0%)	411 (40.4%)		
	인센티브	9 (26.5%)	40 (8.4%)	2 (0.6%)	113 (85.0%)	44 (88.0%)	208 (20.4%)		사후 반응	10 (29.4%)	354 (73.9%)	116 (36.0%)	103 (77.4%)	24 (48.0%)	607 (59.6%)			
수단 II	권위	17 (50.0%)	413 (86.2%)	19 (5.9%)	17 (12.8%)	8 (16.0%)	474 (46.6%)	$\chi^2 = 1284.607, df = 12, p < .000$	전략 II	실체 중심	33 (97.1%)	380 (79.3%)	212 (65.8%)	60 (45.1%)	50 (100%)	735 (72.2%)	$\chi^2 = 96.970, df = 4, p < .000$	
	상징 권고 학습	5 (14.7%)	24 (5.0%)	193 (59.9%)	8 (6.0%)	0 (0.0%)	230 (22.6%)			인식 중심	1 (2.9%)	99 (20.7%)	110 (34.2%)	73 (54.9%)	0 (0.0%)	283 (27.8%)		
	역량 형성	3 (8.8%)	2 (0.4%)	109 (33.9%)	0 (0.0%)	0 (0.0%)	114 (11.2%)		감성 소구 전략	감성 부재	29 (85.3%)	335 (69.9%)	123 (38.2%)	49 (36.8%)	16 (32.0%)	552 (54.2%)		
	인센티브	9 (26.5%)	40 (8.4%)	1 (0.3%)	108 (81.2%)	42 (84.0%)	200 (19.6%)			감성 활용	5 (14.7%)	144 (30.1%)	199 (61.8%)	84 (63.2%)	34 (68.0%)	466 (45.8%)		

수단 III	권위 조직	17 (50.0%)	462 (96.5%)	41 (12.7%)	51 (38.3%)	12 (24.0%)	583 (57.3%)	$\chi^2 = 1258.376,$ $df = 8,$ $p < .000$	위 기 대 응 전 략	방어 전략	2 (5.9%)	65 (13.6%)	201 (62.4%)	63 (47.4%)	11 (22.0%)	342 (33.6%)	$\chi^2 = 232.075,$ $df = 4,$ $p < .000$
	재원	9 (26.5%)	2 (0.4%)	1 (0.3%)	79 (59.4%)	38 (76.0%)	129 (12.7%)			수용 전략	32 (94.1%)	414 (86.4%)	121 (37.6%)	70 (52.6%)	39 (78.0%)	676 (66.4%)	
	정보 매개	8 (23.5%)	15 (3.1%)	280 (87.0%)	3 (2.3%)	0 (0.0%)	306 (30.1%)		전체	34 (100%)	479 (100%)	322 (100%)	133 (100%)	50 (100%)	1018 (100%)		
		정책유형 II				전체	χ^2	정책유형 II				전체	χ^2				
		고객정책	기업가 정책	다수주의	이익집단			고객정책	기업가 정책	다수주의	이익집단						
수단 I	규제	6 (5.5%)	103 (56.3%)	69 (27.5%)	281 (59.3%)	459 (45.1%)	$\chi^2 = 337.408,$ $df = 6,$ $p < .000$	목 적	정보 제공	0 (0.0%)	13 (7.1%)	1 (0.4%)	1 (0.2%)	15 (1.5%)	$\chi^2 = 162.152,$ $df = 6,$ $p < .000$		
	설득	27 (24.5%)	40 (21.9%)	165 (65.7%)	119 (25.1%)	351 (34.5%)			태도 변화	83 (75.5%)	77 (42.1%)	58 (23.1%)	272 (57.4%)	490 (48.1%)			
	인센티브	77 (70.0%)	40 (21.9%)	17 (6.8%)	74 (15.6%)	208 (20.4%)			행동 유도	27 (24.5%)	93 (50.8%)	192 (76.5%)	201 (42.4%)	513 (50.4%)			
수단 II	권위	6 (5.5%)	102 (55.7%)	67 (26.7%)	299 (63.1%)	474 (46.6%)	$\chi^2 = 437.479,$ $df = 9,$ $p < .000$	전 략 I	사전 추구	19 (17.3%)	100 (54.6%)	198 (78.9%)	94 (19.8%)	411 (40.4%)	$\chi^2 = 277.590,$ $df = 3,$ $p < .000$		
	상징 권고 학습	27 (24.5%)	19 (10.4%)	88 (35.1%)	96 (20.3%)	230 (22.6%)			사후 반응	91 (82.7%)	83 (45.4%)	53 (21.1%)	380 (80.2%)	607 (59.6%)			
	역량 형성	0 (0.0%)	24 (13.1%)	80 (31.9%)	10 (2.1%)	114 (11.2%)		전 략 II	실체 중심	47 (42.7%)	126 (68.9%)	238 (94.8%)	324 (68.4%)	735 (72.2%)	$\chi^2 = 116.109,$ $df = 3,$ $p < .000$		
	인센티브	77 (70.0%)	38 (20.8%)	16 (6.4%)	69 (14.6%)	200 (19.6%)			인식 중심	63 (57.3%)	57 (31.1%)	13 (5.2%)	150 (31.6%)	283 (27.8%)			

수 단 III	권위 조직	27 (24.5%)	116 (63.4%)	71 (28.3%)	369 (77.8%)	583 (57.3%)	$\chi^2 = 599.795,$ $df = 6,$ $p < .000$	위 기 대 응 전 략	방어 전략	73 (66.4%)	25 (13.7%)	183 (72.9%)	61 (12.9%)	342 (33.6%)	$\chi^2 = 350.701,$ $df = 3,$ $p < .000$
	재원	79 (71.8%)	24 (13.1%)	14 (5.6%)	12 (2.5%)	129 (12.7%)			수용 전략	37 (33.6%)	158 (86.3%)	68 (27.1%)	413 (87.1%)	676 (66.4%)	
	정보 매개	4 (3.6%)	43 (23.5%)	166 (66.1%)	93 (19.6%)	306 (30.1%)		전체	110 (100%)	183 (100%)	251 (100%)	474 (100%)	1018 (100%)		
의 제 설 정	광고화 모형	8 (7.3%)	13 (7.1%)	19 (7.6%)	3 (0.6%)	43 (4.2%)	$\chi^2 = 28.333,$ $df = 3,$ $p < .000$								
	동원 모형	102 (92.7%)	170 (92.9%)	232 (92.4%)	471 (99.4%)	975 (95.8%)									

8) 연구문제 7의 분석결과

정책수단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보면, 규제의 정책수단 관련 율음은 감성부재와 위기수용전략 커뮤니케이션이 많았고, 설득수단은 행동유도목적의 사전추구, 위기방어전략이 많았고, 인센티브수단은 태도변화목적의 사후반응, 감성활용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많았다. 권위조직의 수단은 사후반응, 실체중심, 감성부재, 위기수용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고, 재원 수단은 인식중심, 감성활용 전략을 정보매개 수단은 사전추구, 위기방어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Table 10〉 참조).

Table 10. Differences in Yuneum Policy Communication by Policy Instruments, Agenda Building

		수단 I			전체	x ²			수단 I			전체	x ²
		규제	실득	인센티브					규제	실득	인센티브		
정책 이행 II	고객정책	6 (1.3%)	27 (7.7%)	77 (37.0%)	110 (10.8%)	x ² = 337.408, df = 6, p < .000	의제 설정	공고화 모형	32 (7.0%)	1 (0.3%)	10 (4.8%)	43 (4.2%)	x ² = 22.203, df = 2, p < .000
	기업가 정책	103 (22.4%)	40 (11.4%)	40 (19.2%)	183 (18.0%)			동원모형	427 (93.0%)	350 (99.7%)	198 (95.2%)	975 (95.8%)	
	다수주의	69 (15.0%)	165 (47.0%)	17 (8.2%)	251 (24.7%)		목적	정보제공	0 (0.0%)	15 (4.3%)	0 (0.0%)	15 (1.5%)	x ² = 197.692, df = 4, p < .000
	이익집단	281 (61.2%)	119 (33.9%)	74 (35.6%)	474 (46.6%)			태도변화	201 (43.8%)	107 (30.5%)	182 (87.5%)	490 (48.1%)	
수단 II	권위	430 (93.7%)	41 (11.7%)	3 (1.4%)	474 (46.6%)	x ² = 1659.109, df = 6, p < .000	행동유도	258 (56.2%)	229 (65.2%)	26 (12.5%)	513 (50.4%)	x ² = 92.017, df = 2, p < .000	
	상징권고 학습	29 (6.3%)	197 (56.1%)	4 (1.9%)	230 (22.6%)			전략 I	사전추구	139 (30.3%)	213 (60.7%)		
	역량형성	0 (0.0%)	113 (32.2%)	1 (0.5%)	114 (11.2%)		사후반응		320 (69.7%)	138 (39.3%)	149 (71.6%)		607 (59.6%)
	인센티브	0 (0.0%)	0 (0.0%)	200 (96.2%)	200 (19.6%)		감성소	감성부재	347 (75.6%)	140 (39.9%)	65 (31.3%)		552 (54.2%)

수단 III	권위 조직	449 (97.8%)	55 (15.7%)	79 (38.0%)	583 (57.3%)	$\chi^2 = 1259.334,$ $df = 4,$ $p < .000$	구 전략	감성활용	112 (24.4%)	211 (60.1%)	143 (68.8%)	466 (45.8%)	$p < .000$		
	재원	2 (0.4%)	0 (0.0%)	127 (61.1%)	129 (12.7%)			위 기 대응 전략	방어전략	66 (14.4%)	202 (57.5%)	74 (35.6%)		342 (33.6%)	$\chi^2 = 166.624,$ $df = 2,$ $p < .000$
	정보매개	8 (1.7%)	296 (84.3%)	2 (1.0%)	306 (30.1%)			수용전략	393 (85.6%)	149 (42.5%)	134 (64.4%)	676 (66.4%)			
							전체	459 (100%)	351 (100%)	208 (100%)	1018 (100%)				
		수단 II				전체	χ^2	수단 II				전체	χ^2		
	권위	상징권고·학습	역량 형성	인센티브	권위			상징권고·학습	역량 형성	인센티브					
전제 유형 II	고객정책	6 (1.3%)	27 (11.7%)	0 (0.0%)	77 (38.5%)	110 (10.8%)	$\chi^2 = 437.479,$ $df = 9,$ $p < .000$	전략 I	사전추구	133 (28.1%)	124 (53.9%)	98 (86.0%)	56 (28.0%)	411 (40.4%)	$\chi^2 = 158.525,$ $df = 3,$ $p < .000$
	기업가 정책	102 (21.5%)	19 (8.3%)	24 (21.1%)	38 (19.0%)	183 (18.0%)			사후반응	341 (71.9%)	106 (46.1%)	16 (14.0%)	144 (72.0%)	607 (59.6%)	
	다수주의	67 (14.1%)	88 (38.3%)	80 (70.2%)	16 (8.0%)	251 (24.7%)		전략 II	실체중심	374 (78.9%)	139 (60.4%)	89 (78.1%)	133 (66.5%)	735 (72.2%)	$\chi^2 = 31.667,$ $df = 3,$ $p < .000$
	이익집단	299 (63.1%)	96 (41.7%)	10 (8.8%)	69 (34.5%)	474 (46.6%)			인식중심	100 (21.1%)	91 (39.6%)	25 (21.9%)	67 (33.5%)	283 (27.8%)	

수 단 III	권위 조직	451 (95.1%)	51 (22.2%)	3 (2.6%)	78 (39.0%)	583 (57.3%)	$\chi^2 = 1187.887,$ $df = 6,$ $p < .000$	감성 소구 전략	감성부재	358 (75.5%)	35 (15.2%)	95 (83.3%)	64 (32.0%)	552 (54.2%)	$\chi^2 = 306.365,$ $df = 3,$ $p < .000$
	재원	4 (0.8%)	4 (1.7%)	0 (0.0%)	121 (60.5%)	129 (12.7%)			감성활용	116 (24.5%)	195 (84.8%)	19 (16.7%)	136 (68.0%)	466 (45.8%)	
	정보매개	19 (4.0%)	175 (76.1%)	111 (97.4%)	1 (0.5%)	306 (30.1%)		위기 대응 전략	방어전략	66 (13.9%)	118 (51.3%)	84 (73.7%)	74 (37.0%)	342 (33.6%)	$\chi^2 = 197.715,$ $df = 3,$ $p < .000$
목 적	정보제공	0 (0.0%)	2 (0.9%)	13 (11.4%)	0 (0.0%)	15 (1.5%)	$\chi^2 = 285.227,$ $df = 6,$ $p < .000$		수용전략	408 (86.1%)	112 (48.7%)	30 (26.3%)	126 (63.0%)	676 (66.4%)	
	태도변화	209 (44.1%)	96 (41.7%)	8 (7.0%)	177 (88.5%)	490 (48.1%)		전체	474 (100%)	230 (100%)	114 (100%)	200 (100%)	1018 (100%)		
	행동유도	265 (55.9%)	132 (57.4%)	93 (81.6%)	23 (11.5%)	513 (50.4%)									
		수단III			전체	χ^2	수단III			전체	χ^2				
		권위 조직	재원	정보매개			권위 조직	재원	정보매개						
정 책 유 형 II	고객정책	27 (4.6%)	79 (61.2%)	4 (1.3%)	110 (10.8%)	$\chi^2 = 599.795,$ $df = 6,$ $p < .000$	전략 I	사전추구	146 (25.0%)	49 (38.0%)	216 (70.6%)	411 (40.4%)	$\chi^2 = 173.269,$ $df = 2,$ $p < .000$		
	기업가 정책	116 (19.9%)	24 (18.6%)	43 (14.1%)	183 (18.0%)			사후반응	437 (75.0%)	80 (62.0%)	90 (29.4%)	607 (59.6%)			
	다수주의	71 (12.2%)	14 (10.9%)	166 (54.2%)	251 (24.7%)		전략 II	실체중심	453 (77.7%)	71 (55.0%)	211 (69.0%)	735 (72.2%)	$\chi^2 = 29.326,$ $df = 2,$ $p < .000$		
	이익집단	369 (63.3%)	12 (9.3%)	93 (30.4%)	474 (46.6%)			인식중심	130 (22.3%)	58 (45.0%)	95 (31.0%)	283 (27.8%)			

의제 설정	광고화 모형	32 (5.5%)	10 (7.8%)	1 (0.3%)	43 (4.2%)	$\chi^2 = 17.762,$ $df = 2,$ $p < .000$	감성 소구 전략	감성부재	370 (63.5%)	51 (39.5%)	131 (42.8%)	552 (54.2%)	$\chi^2 = 47.330,$ $df = 2,$ $p < .000$
	동원모형	551 (94.5%)	119 (92.2%)	305 (99.7%)	975 (95.8%)			감성활용	213 (36.5%)	78 (60.5%)	175 (57.2%)	466 (45.8%)	
목적	정보제공	0 (0.0%)	0 (0.0%)	15 (4.9%)	15 (1.5%)	$\chi^2 = 158.200,$ $df = 4,$ $p < .000$	위기 대응 전략	방어전략	74 (12.7%)	72 (55.8%)	196 (64.1%)	342 (33.6%)	$\chi^2 = 269.962,$ $df = 2,$ $p < .000$
	태도변화	279 (47.9%)	117 (90.7%)	94 (30.7%)	490 (48.1%)			수용전략	509 (87.3%)	57 (44.2%)	110 (35.9%)	676 (66.4%)	
	행동유도	304 (52.1%)	12 (9.3%)	197 (64.4%)	513 (50.4%)		전체	583 (100%)	129 (100%)	306 (100%)	1018 (100%)		
		의제설정			전체	χ^2			의제설정		전체	χ^2	
		광고화모형	동원모형	공고화모형			동원모형						
정책 유형 II	고객정책	8 (18.6%)	102 (10.5%)	110 (10.8%)	$\chi^2 = 28.333,$ $df = 3,$ $p < .000$	전 략 II	실체중심	42 (97.7%)	693 (71.1%)	735 (72.2%)	$\chi^2 = 14.515,$ $df = 1,$ $p < .000$		
	기업가 정책	13 (30.2%)	170 (17.4%)	183 (18.0%)			인식중심	1 (2.3%)	282 (28.9%)	283 (27.8%)			
	다수주의	19 (44.2%)	232 (23.8%)	251 (24.7%)		전체	43 (100%)	975 (100%)	1018 (100%)				
	이익집단	3 (7.0%)	471 (48.3%)	474 (46.6%)		X							

9) 연구문제 8과 9의 분석결과

윤음의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의 차이를 보면 우선 다수주의정책과 공고화 의제설정모형의 교집합이 많고, 이익집단과 동원의제설정모형의 교집합이 많았다. 더불어 공고화 모형은 실체중심전략을 동원모형은 인식중심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Table 10〉 참조).

커뮤니케이션 목적에 따른 정책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차이를 보면 정보제공 목적 윤음은 사전추구, 인식중심, 위기방어전략이 많았고, 태도변화 목적은 사후반응, 감성활용, 위기수용전략이 많았고, 행동유도 목적은 실체중심 전략이 많았다. 전략간을 보면 사전추구와 실체중심, 위기방어전략의 교집합이 많고, 사후반응과 인식중심, 위기수용전략 간 교집합이 많았다. 인식중심 전략이 감성을 더 활용하고 있었다(〈Table 11〉 참조).

Table 11. Differences in Yuneum Policy Communication Process by Communication Purpose

		목적			전체	χ^2			전략 I		전체	χ^2
		정보제공	태도변화	행동유도					사전추구	사후반응		
전략 I	사전추구	12 (80.0%)	113 (23.1%)	286 (55.8%)	411 (40.4%)	$\chi^2 = 121.178,$ $df = 2,$ $p < .000$	전략 II	실체중심	340 (82.7%)	395 (65.1%)	735 (72.2%)	$\chi^2 = 38.040,$ $df = 1,$ $p < .000$
	사후반응	3 (20.0%)	377 (76.9%)	227 (44.2%)	607 (59.6%)			인식중심	71 (17.3%)	212 (34.9%)	283 (27.8%)	
전략 II	실체중심	1 (6.7%)	284 (58.0%)	450 (87.7%)	735 (72.2%)	$\chi^2 = 143.162,$ $df = 2,$ $p < .000$	위기대응 전략	방어전략	230 (56.0%)	112 (18.5%)	342 (33.6%)	$\chi^2 = 154.558,$ $df = 1,$ $p < .000$
	인식중심	14 (93.3%)	206 (42.0%)	63 (12.3%)	283 (27.8%)			수용전략	181 (44.0%)	495 (81.5%)	676 (66.4%)	
감성소구 전략	감성부재	9 (60.0%)	228 (46.5%)	315 (61.4%)	552 (54.2%)	$\chi^2 = 22.539,$ $df = 2,$ $p < .000$	전체		411 (100%)	607 (100%)	1018 (100%)	$\chi^2 = 27.659,$ $df = 1,$ $p < .000$
	감성활용	6 (40.0%)	262 (53.5%)	198 (38.6%)	466 (45.8%)		전략 II		실체중심	인식중심	전체	
위기대응 전략	방어전략	13 (86.7%)	128 (26.1%)	201 (39.2%)	342 (33.6%)	$\chi^2 = 38.379,$ $df = 2,$ $p < .000$	감성소구 전략	감성부재				436 (59.3%)
	수용전략	2 (13.3%)	362 (73.9%)	312 (60.8%)	676 (66.4%)			감성활용	299 (40.7%)	167 (59.0%)	466 (45.8%)	
전체		15 (100%)	490 (100%)	513 (100%)	1018 (100%)	전체		735 (100%)	283 (100%)	1018 (100%)		

6.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조선시대 대민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윤음이 수행한 역할을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조선의 윤음은 전형적인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금은 주로 중앙관료를 대상으로 정치를 펼쳤으며, 중앙관료는 지방관료를, 지방관료는 일반 백성을 통치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특히, 윤음은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임금이 중앙관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을 일반 백성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강한 왕권’을 과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다만, 윤음이 임금이 내리는 훈유문서였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중앙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윤음도 변화하였다. 윤음의 시대 차이 특징을 자세히 보면, 전기에는 국방·외교, 중기에는 왕실과 인사 관련, 후기로 갈수록 농업·천기·풍속, 사법, 재정 정책이 많아졌다. 또한 정책의 대상도 변화하여, 전기에는 관료 대상, 후기에는 일반 백성과 유생을 대상이 증가했다. 중앙 정부 중심에서 후기에는 지방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윤음이 많아졌다. 정책유형별로 보면, 국가 운영 관련 구성정책은 전기에 많았고, 재분배정책(경제적 지원, 자원 배분 등)은 후기에 많아졌다. 정책수단 또한 전기에는 설득·정보매개 중심이었으나, 중기에는 규제·권위가 강조되었고, 후기로 갈수록 감성부재·사후반응 전략이 증가했다.

여기에서 조선시대 주요 임금별 정책커뮤니케이션 차이를 보면, 조선의 주요 임금들이 사용한 정책 소통 방식은 각 왕의 통치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세종시기 윤음은 국방·외교 정책이 많았고, 설득·정보매개를 활용하는 방식, 사전추구·감성활용 전략이 두드러졌고, 선조시기에는 인사 정책이 많으며, 규제·권위 중심의 정책 소통을 사용했다. 다음 영조·정조시기에는 재정 정책이 가장 중요한 주제였으며, 기업가정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후기인 고종시기에 와서는 농업·천기·풍속 및 사법 정책이 증가했으며, 인센티브 수단, 사후반응·감성부재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다음, 정책 대상별 차이를 보면, 관료를 대상으로 한 윤음에서는 국방·외교, 인사 정책, 규제·이익집단 정책유형, 권위·조직 중심 정책수단, 사후반응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일반 백성·유생을 대상으로 한 윤음에서는 농업·천기·풍속, 재정 정책이 많았고, 재분배·다수주의 정책유형, 인센티브·정보매개 중심 정책수단, 사전추구전략·실체중심전략 활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임금은 윤음을 통해 관료에게는 권위적이고 규제적이며, 사후 반응적인 소통을 한 반면, 일반 백성 대상으로는 재정을 분배하고 사전에 실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보여준다. 대상 공간에 따른 차이는 관료는 중앙, 지방은 백성과 맥을 같이하였다. 즉,

중앙은 국방·외교, 왕실, 인사 정책, 규제·이익집단 정책이, 전국은 농업·천기·풍속 정책, 설득·역량형성·정보매개 정책수단, 지방은 재정, 인센티브·재원 정책수단이 많았다.

윤음의 정책적 성격을 분석하면, 대체로 권위 부여, 규제, 동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으며, 이는 중앙집권적 통치의 특징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 최근 정책교과서의 분류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고객정책이자 분배정책인 윤음이 기업가정책이자 재분배정책인 윤음도 많았고, 권위적 수단을 활용한 규제정책, 인센티브·재원 수단을 활용한 분배·재분배정책, 설득·정보매개 중심의 다수주의 정책이 많았고, 공고화 의제설정과 재분배정책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전략적으로 보면, 비용을 다수가 분산 지불하고 편익은 소수에게 가는 고객지향적 정책을 위해서는 인식 및 태도 변화 전략을 사용하고, 혜택은 사회적이고 정부나 중앙이 비용을 담당하는 기업가 이익집단 정책은 위기수용전략을 다수 활용하는 방식은 윤음의 전략적인 활용 모습을 보여준다.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 따른 차이를 보면, 사회 다수가 비용과 이익을 제공하는 다수주의 정책과 사회 다수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고화 의제설정 모형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고, 소수가 비용과 이익을 제공하는 이익집단 정책에 정부가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동원 의제설정 모형의 결합이 많은 결과 역시 정책교과서적인 방식을 조선도 통치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책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윤음은 주로 소통 대상의 행동 유도과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통 방식은 사전적으로 쟁점을 설정하기보다는 사후 대응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으며, 감성적 정서 표현은 적고, 메시지 내 책임 수용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났다.

교차분석을 통해보면, 행동 유도 목적의 실체중심 소통이 많았고, 태도 변화 목적의 위기수용, 사후반응, 감성활용 윤음이 많았다. 전략 간 결합을 보면, 사전추구 전략은 실체중심·위기방어 전략과 자주 결합되었으며, 사후반응 전략은 인식중심·위기수용 전략과 많이 연계되었다. 이는 소통주체인 임금이 이미 실체적인 위기 쟁점에 대해 미리 사전 책임회피적인 방어적인 전략을 가지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미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위기 쟁점은 사후적으로 적극 수용하고 백성들에게 감성적 양해를 구하는 소통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윤음은 조선시대 정치에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적 통치의 핵심적인 소통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정책적 기능뿐만 아니라 통치 구조를 정당화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본 연구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음은 조선시대 정치에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적 통치의 핵심적인 소통 수단으로 작용했으며, 정책적 기능뿐만 아니라 통치 구조

를 정당화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조선 초, 즉 14-15세기 태조에서 중종까지는 조선 건국 체제의 완성기로서, 중앙집권적 체제 확립이 중요한 과제였다. 이 시기의 정치적 주체는 훈구파였으며, 윤음 또한 훈구파 관료들에게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박영규, 2017). 이렇듯 조선 초기에 형성되었던 윤음의 역할은 후기까지도 주요 소통의 목적으로 활용되었다.¹⁰⁾

둘째, 임금의 윤음은 임금이 중앙관료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대국민 메시지 역할도 하였고, 임금과 중앙관료의 합치된 대국민 메시지 역할도 했다. 즉, 임금은 주로 중앙관료를 대상으로 정치를 펼쳤으며, 중앙관료는 지방관료를, 지방관료는 일반 백성을 통치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실제 윤음이 언급된 실록 기사를 통해 윤음을 보면 윤음 내에 상소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이다. 즉 관료 및 유생들의 상소가 윤음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금의 직접적 훈유는 매우 제한적이고 절제되어 있다. 이는 윤음을 통해 각종 민원 형태의 상소를 임금이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을 대민에게 알리려는 목적과 임금의 존엄한 권위를 가지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윤음은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임금과 중앙관료 간의 소통 상황을 일반 백성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는 '강한 왕권'을 과시하는 기능도 수행했다. 다만, 윤음이 임금이 내리는 훈유문서였고 중앙관료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자연스럽게 중앙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¹¹⁾

셋째, 윤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앙집권 통치 특징인 권위 부여, 규제, 동원과 관련된

10) 관련된 윤음은 다음과 같다. 성종실록 67권(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7번째 기사): 대사헌 윤계겸 등이 9조의 시무책을 올리니 원상들에게 의논케 함. 세종실록 97권(세종 24년 8월 24일 신해 3번째 기사): 정갑손 등 대간이 첨사원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거듭 아뢰. 예종실록 2권(예종 즉위년 11월 13일 기사 2번째 기사): 상제·학교·공법·사창·정병 유방에 관한 윤효손의 상소문. 세종실록 73권(세종 18년 윤6월 19일 계미 2번째 기사):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을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보냄. 세종실록 97권(세종 24년 8월 12일 기해 2번째 기사): 성균 생원들이 의금부에 수금된 스승을 풀어달라고 상소함. 예종실록 2권(예종 즉위년 11월 13일 기사 2번째 기사): 상제·학교·공법·사창·정병 유방에 관한 윤효손의 상소문. 단종실록 8권(단종 1년 10월 14일 정유 1번째 기사): 세조가 종친과 문무 백관과 더불어 진을 올리어 정난을 하례하고 표리를 올림.

11) 관련된 윤음은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63권(세종 16년 3월 9일 병술 2번째 기사): 성균관 대사성 권채 등이 글을 올려 왕의 치제와 덕을 찬미함. 성종실록 198권(성종 17년 12월 14일 을유 4번째 기사): 양양 부사 유자현이 상소하여 백성의 사곡을 관부에 간직하여 낭비를 막기를 청함. 세종실록 34권(세종 8년 12월 7일 병인 2번째 기사): 세자와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명에 보내는 사은 및 진하표에 배례함. 세종실록 44권(세종 11년 6월 8일 계미 4번째 기사): 성덕을 노래하고 성수를 축원할 악장 2편을 악부에 기재함. 세종실록 42권(세종 10년 11월 1일 기유 4번째 기사): 김효정이 순성군 이개에게 내린 반인을 거두라는 상소함. 세종실록 48권(세종 12년 4월 13일 계미 5번째 기사): 박안신이 왜구를 막을 병선을 제조할 것을 상소함. 세종실록 100권(세종 25년 4월 27일 임자 1번째 기사): 성균 생원 최윤 등이 진 검사 성 금유의 직임을 환인시킬 것을 상소함. 세종실록 85권(세종 21년 5월 26일 계유 1번째 기사): 허조·송거신 등이 사은 진을 올림. 세종실록 97권(세종 24년 8월 12일 기해 2번째 기사): 성균 생원들이 의금부에 수금된 스승을 풀어달라고 상소함. 문종실록 9권(문종 1년 9월 19일 갑인 3번째 기사): 역질의 만연으로 인한 수륙제 행사를 반대하는 대사헌 정창손의 상소. 문종실록 13권(문종 2년 9월 1일 경인 1번째 기사): 현릉에 장사 그 애책문(哀冊文).

정책이 많았고, 대상의 행동 유도과 태도 변화 목적의 구체적인 지침 형태의 정책 소통이 많았다. 소통 방식은 감성적 정서 표현을 절제한 체, 쟁점들의 사후 대응적 책임 수용 방식이 많았다.¹²⁾

넷째, 조선초기 임금과 중앙관료간 국가운영 중심의 설득 소통, 중기 규제·권위 중심 소통, 후기에는 지방 및 전국대상 인센티브·사후반응의 재정·분배 중심 정책 소통을 했다. 즉, 시대가 흐를수록 관료 중심 → 일반 백성 중심, 중앙 정부 → 지방 및 전국으로 변화하였고, 정책 유형별로 초기에는 국가 운영 중심에서 후기에는 재정·분배 중심 정책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책수단도 설득 중심(전기) → 규제·권위 중심(중기) → 인센티브·사후반응 중심(후기)으로 변화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초기에는 관료대상 감성 활용 및 사전추구 전략, 후기에는 사후반응 및 감성 부재 전략 강화 즉, 조선 후기에는 관료보다 일반 백성을 동원하는 정책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기는 왕과 훈구파 중심으로 국가 기반을 세우는 과정에서 왕과 중앙관료 간 설득 소통이 윤음의 주요 내용이었고,¹³⁾ 조선중기인 15-18세기, 중종에서 영조까지의 시기에는 사람의 등장과 함께 봉당정치가 개막되면서 윤음의 정치적 성격이 변화하였다. 사람은 왕권보다는 신권(臣權)을 강조하며 윤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한영우, 1994). 따라서 위 규제·권위 중심의 윤음은 임금의 대국민에 대한 직접적 소통내용 이외 사람인 중앙관료들의 대국민 메시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¹⁴⁾ 조선후기 윤음에 나타난 지방 및 전국대상 인센티브·사후반응의

12) 관련된 윤음은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67권(세종 17년 3월 29일 신축 5번째 기사): 영의정부사 황희가 전을 올려 노쇠함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치 않음. 영조실록 70권(영조 25년 9월 2일 정미 1번째 기사): 대리한 뒤로 군국에 관계되는 일은 동궁에 들이도록 명했는데 그를 윤음초라 함. 세종실록 73권(세종 18년 윤6월 19일 계미 2번째 기사): 4품 이상이 올린 외구(外寇)의 제어책을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보냄. 광해군중초본 54권(광해 12년 9월 13일 정해 3번째 기사): 함사하여 존호 추상을 청했으나 불허함. 광해군중초본 54권(광해 12년 9월 18일 임진 2번째 기사): 백관들이 존호 추상을 청했으나 불허함.

13) 관련 조선 초기 윤음은 다음과 같다. 성종실록 67권(성종 7년 5월 15일 정사 7번째 기사): 대사헌 윤계겸 등이 9조의 시무책을 올리니 원상들에게 의논케 함. 세종실록 97권(세종 24년 8월 24일 신해 3번째 기사): 정감손 등 대간이 첨사원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거듭 아뢰. 문종실록 9권(문종 1년 9월 19일 갑인 3번째 기사): 역질의 만연으로 인한 수륙제 행사를 반대하는 대사헌 정창손의 상소. 단종실록 8권(단종 1년 10월 14일 정유 1번째 기사): 세조가 종친과 문무 백관과 더불어 전을 올리어 정난을 하례하고 표리를 올림. 단종실록 2권(단종 즉위년 8월 28일 무자 1번째 기사): 문종의 건전(遣奠)을 행하다. 발인 반차의 및 애책(哀冊)과 사(詞)를 올림.

14) 관련 조선 중기 윤음은 다음과 같다. 선조실록 75권(선조 29년 5월 17일 계미 4번째 기사): 성균관 진사 이육 등이 성균관의 재건을 상소하니 의논하여 처치하게 함. 광해군중초본 54권(광해 12년 9월 13일 정해 3번째 기사): 함사하여 존호 추상을 청했으나 불허함. 광해군중초본 54권(광해 12년 9월 18일 임진 2번째 기사): 백관들이 존호 추상을 청했으나 불허함. 명종실록 22권(명종 12년 3월 25일 무인 3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한호 등이 시학할 때 지영을 정파한 일이 예에 어긋남을 아뢰 상소. 영조실록 74권(영조 27년 9월 11일 갑술 2번째 기사): 영조가 지어서 내린 수성 윤음(守城諭音). 영조실록 70권(영조 25년 9월 2일 정미 1번째 기사): 대리한 뒤로 군국에 관계되는 일은 동궁에 들이도록 명했는데 그를 윤음초라 함. 영조실록 77권(영조 28년 6월 7일 병신 2번째 기사): 승지와 사관에게 균역 윤음을 쓰라고 명함.

재정·분배 중심 정책 소통은 세도정치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다. 세도 가문들은 윤음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정당화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신병주, 2006). 특히 19-20세기 정조에서 순종까지의 시기에는 봉당이 붕괴되고 척족 중심의 세도정치가 자리 잡으면서, 윤음의 사용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¹⁵⁾ 왕권이 약화되고 외척 및 권력가들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윤음은 권력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이태진, 2011). 따라서 후기 윤음은 중기에 윤음이 왕과 사람의 대민 메시지였던 것처럼, 왕 주변의 척족들의 대민 메시지였고, 따라서 전국 대상으로 백성들에게 재정과 분배 관련 직접적인 국가 운영 정책들이 전달되었으며, 동시에 세도정치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민 인센티브 정책 그리고 백성의 불만 쟁점들에 대한 사후 즉각적인 해결 소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이러한 조선임금의 윤음 소통은 이중적 기능으로 일반 백성에게는 관대한 임금의 소통이고 관료 및 왕족에게는 엄한 군주의 소통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즉, 임금은 윤음을 통해 관료에게는 권위적, 규제적, 사후 반응적 소통을 한 반면, 일반 백성에게는 재정을 분배하고 사전에 실체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용적인 모습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후기 세도정치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윤음의 이중적 특성은 더욱 강화되어, 외척 중심의 정권 운영 속에서 민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윤음이 사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순조와 헌종 시기의 윤음에는 세도 가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변명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김문식, 2009).¹⁶⁾

결과를 기초에 논의된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및 학술적 의의는 다음 다섯으로 정리 가능

15) 관련 조선 후기 윤음은 다음과 같다. 정조실록 44권(정조 20년 6월 10일 갑신 4번째 기사): 유생 박헌흠 등이 상소하여 조현·김집의 문묘 종향을 청함. 정조실록 41권(정조 18년 11월 1일 을유 1번째 기사): 화성의 공사를 정지하는 일에 관해 윤음을 내림. 순조실록 14권(순조 11년 4월 28일 을해 3번째 기사): 가문과 관련하여 팔도와 사도의 방백과 수신에게 유시함. 순조실록 10권(순조 7년 1월 1일 계묘 3번째 기사): 권농 윤음을 내림.

16) 관련된 윤음은 다음과 같다. 고종실록 8권(고종 8년 1월 10일 경자 1번째 기사): 각도의 수령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권농하는 책임을 지게 함. 고종실록 10권(고종 10년 윤6월 10일 병술 2번째 기사): 진주에 수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위유사를 파견함. 고종실록 11권(고종 11년 7월 7일 정미 1번째 기사): 영남의 재해를 입은 고을들에 윤음을 내림. 고종실록 14권(고종 14년 4월 1일 병술 1번째 기사): 기근 구제를 하는 도와 유수도에 윤음을 내림. 고종실록 19권(고종 19년 9월 22일 을사 6번째 기사): 재정의 낭비 등 시폐에 관하여 이민성이 상소함. 고종실록 22권(고종 22년 12월 8일 임신 1번째 기사): 경상도의 공전으로 곡식을 사서 김해 등을 구휼하고 인천부에 도시를 복설함. 고종실록 32권(고종 31년 7월 26일 경자 5번째 기사): 경상도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윤음을 내림. 고종실록 32권(고종 31년 8월 15일 기미 1번째 기사): 선무사 정경원이 동학 무리들을 잘 진압하지 못했으므로 대죄함. 고종실록 32권(고종 31년 10월 13일 병진 1번째 기사): 삼남에 윤음을 내려 비적을 토벌할 것과 백성들을 안착시킬 것을 명함. 고종실록 32권(고종 31년 12월 13일 을묘 2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의 백성들에게 자주 독립을 고취하는 윤음을 내림. 고종실록 41권(고종 38년 12월 4일 양력 1번째 기사): 각 도와 각 군에 혜민사를 설치하게 하고 혜민원에서 관찰하게 함.

하다. 첫째,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가권력이 국민(백성)과 소통했던 대표적 수단인 ‘윤음’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시대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단순한 역사 서술을 넘어, 정책 소통의 역사적 기원과 정당화 기제를 밝힌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 두 번째 의의는 통치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별 전략 변화 추적이다. 조선 전기-중기-후기를 아우르는 윤음 분석을 통해, 국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설득 → 규제 → 인센티브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힌 점은 이 연구의 핵심적인 성과이다. 특히 이는 정치체제의 변화(훈구 → 사림 → 세도 가문)에 따른 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기존의 정치사 또는 행정사 중심의 접근을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연결시킨 학제적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조선 왕권과 관료제 사이의 메시지 구성 방식 규명을 시도했다. 즉, 윤음이 왕권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중앙 관료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했음을 밝힘으로써, 조선시대 정치 주체 간 커뮤니케이션 협력 구조의 존재를 규명했다. 이는 권력의 일방적 소통이 아닌, ‘왕-관료-백성’의 다층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존재했음을 실증한 것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넷째, 윤음의 이중적 수사 전략이 작동함을 확인한 결과 또한 학술적 의의가 적지 않다. 윤음이 관료에겐 규율적·명령적, 백성에겐 온정적·은혜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중적 소통 전략’을 사용했다는 분석은, 통치 메시지의 대상별 수사적 구성 전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타겟별 메시지 전략과의 유사성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현대적 시사점도 지닌다.

마지막으로 윤음을 통해 조선 말 정치 권력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변질에 대한 역사적 성찰도 제공한다. 조선 후기 세도정치 시기, 윤음이 왕권이 아닌 외척과 권력 가문의 정당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분석은, 공적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정치적 왜곡 가능성을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의 정치 소통과 미디어 활용에 대해 비판적 성찰의 관점을 제공하는 학술적 가치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기여와 의의와 함께 논의된 몇 가지 향후 관련 연구의 제언점이 있다. 우선 윤음 이외 동시대 타 실록 내 관련 기록 분석을 통해 윤음 내 사건 및 사안들의 추적 조사로 정책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윤음의 효과성 분석도 의미가 있다. 또한, 본 논문 내 변수 이외 변수 및 변수값으로 윤음을 재분석하는 연구 역시 제언된다. 예로 정서적 메시지 분석 변수값을 정서성 존재 유무를 넘어 격려, 경고, 위로 등으로 세부화하여 추가 분석하는 방법도 논의에서 제언되었다. 관련 연구의 확장을 기대한다.

References

- Baskin, O., Aronoff, C., & Lattimore, D. (1997). *Public relations? The profession and the practice* (4th ed.). McGraw-Hill.
- Cha, S. (2018). *The confucian meritocracy and personnel appointment during the Chosŏn Dynas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차세영 (2018). <조선의 인사임용제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유교적 실적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hoi, S. (2004). *A study on the history of journalism in the Joseon Dynasty*. Jisik Sanupsa. [최승희 (2004). <조선초기 언론사 연구>. 지식산업사.]
- Cobb, R. W., Ross, J., & Ross, M. H. (1976). Agenda building as a comparative political pro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0(1), 126-138.
- Coombs, T. (1999). *Ongoing crisis communication: Planning, managing, and responding*. Sage. 이현우 (역) (2001).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 Frazer, C. F. (1983). Creative strategy: A management perspective. *Journal of Advertising*, 12(4), 36-41.
- Ha, S. (2023).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local administration in Korea: Focused on the Gyeongguk Daejeon and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jakpah)*, 58, 159-177. [하상균 (2023). 한국 지방행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경국대전과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58권, 159-177.]
- Han, M., Chung, D., & Kim, J. (2005). An analysis of the Gwageo system in Chosun Dynasty.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5(1), 161-185. [한만봉·정덕희·김진욱 (2005). 조선왕조 과거제도 인사정책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5권 1호, 161-185.]
- Han, W. (1988). A study on the official historians and the compiling of the Veritable Records in the former Yi Dynasty. *The Chin-Tan Society*, 66, 125-167. [한우근 (1988).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권, 125-167.]
- Han, Y. (1994). *Korean nationalist history*. Iljogak. [한영우 (1994). <한국민족주의역사학>. 일조각.]
- Hood, C. (1986). *The tools of government*. Chatham House.
- Hutton, J. G. (1999). The definition, dimensions, and domain of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 Review*, 25, 204-208.
- Jang, H. (2006). The central government's suppressive process against the Donghak Agrarian army and its

- measures to correspond to local officials in the Donghak Agrarian revolution period. *The Korea Journal of Donghak Studies (KJDS)*, 20, 51-85. [장희홍 (2006). 동학농민혁명기 조선 정부의 농민군 진압과정과 지방관에 대한 대책. <동학연구>, 20권, 51-85.]
- Kim, B. (1993). A study on communication forms in the Joseon Dynasty. I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Ed.),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pp. 27-45).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김복수 (1993). 조선시대의 커뮤니케이션 형태 연구.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 (27-45쪽), 한국언론학회.]
- Kim, D. (2003). A study on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and national history education.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85, 41-72. [김돈 (2003).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와 국사교육. <역사교육>, 85권, 41-72.]
- Kim, D., Kang, Y., & Kim, C. (2012). Study on a policy for forest fire during Joseon Dynasty(during 1392~19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2(6), 217-221. [김동현·강영호·김찬범 (2012). 조선시대(1392~1910)의 산불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2권 6호, 217-221.]
- Kim, H. (2008). A study on thought of affection for people observed in King Jeongjo's Chaekmun. *Journal of Korean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17(1), 127-154. <https://doi.org/10.18213/jkcl.2008.17.1.005>. [김현옥 (2008). 정조의 책문에 나타난 애민사상 연구. <한문고전연구>, 17권 1호, 127-154.]
- Kim, H. (2008). Modernity appearing in urban plann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alyzing the chronicles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2(1), 41-67. [김홍순 (2009). 조선 후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2권 1호, 41-67.]
- Kim, J. (2018). An scientometric analysis of fisheries records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cean Policy Research*, 33(1), 59-92. <https://doi.org/10.35372/kmiopr.2018.33.1.003> [김진백 (2018). 조선시대 수산 기록에 대한 과학계량적 분석: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33권 1호, 59-92.]
- Kim, K. (2008). The compilation and historical value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Jeolla Cultural Series*, 27, 15-57. [김경수 (2008).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사료적 가치. <전라문화총서>, 27권, 15-57.]
- Kim, M. (2009). *The external perception of intellectu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aemunsa. [김문식 (2009). <조선 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 Kim, O., & Jang, D. (2021). A study on social welfare policy in the King Sejong period: Based on the Annals of the Sejong Silok. *Journal of Social Science*, 32(4), 263-282. <https://doi.org/10.16881/jss.2021.10.32.4.263>. [김옥주·장덕희 (2021). 세종대의 사회복지정책 연구: 세종실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

구>, 32권 4호, 263-282.]

- Kim, Y., & Ju, U. (2023). A viewpoint on population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jakpah)*, 59, 65-86. [김영재·주운현 (2023). 조선시대 인구정책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사학지>, 59권, 65-86.]
- Ko, Y. (1995). Political and ideological changes in Joseon society and periodization. *Yöksa wa Hyönsil*, 18, 84-110. [고영진 (1995). 조선사회의 정치·사상적 변화와 시기구분. <역사와 현실>, 18권, 84-110.]
- Lee, K. (1991). Study of Mencius on rhetoric of enlightenment and governing. *Media, Society & Culture*, 1, 91-119. [이규완 (1991). 맹자의 교화언론과 왕도언론 사상. <언론 사회 문화>, 1호, 97-119.]
- Lee, S. (1998). The nature of enlightenment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 11(1), 153-185. [이석규 (1998). 조선초기 교화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11권 1호, 153-185.]
- Lee, T. (2023). Urban environment, energy, and climate policies of Hansungbu in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36(3), 33-60. <https://doi.org/10.36700/KRUMA.2023.9.36.3.33>. [이태화 (2023).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난 한성부의 도시환경, 에너지, 기후대응정책. <도시행정학보>, 36권 3호, 33-60.]
- Lowi, T. J.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 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4), 677-715.
- Moon, H. (2018). Study on Confucian politics about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rough big data analysi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7), 253-261. <https://doi.org/10.5392/JKCA.2018.18.07.253>. [문혜정 (2018). 조선왕조실록의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유교정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권 7호, 253-261.]
- Nam, T., Park, J., Bae, S., Cho, S., & Lee, Y. (2025). Categorizing policies in Yuneum of the Joseon Dynasty Annals.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18(4), 233-281. [남태우·박종민·배수호·주수향·이영규 (2025). 조선왕조실록 繪音에 나타난 정책의 유형.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8권 4호, 233-281.]
- Namgung, G. (2016). *Policy sciences*. Beobmunsa. [남궁근 (2016). <정책학>. 법문사.]
- No, B., & Kwon, O. (2011, April). *A study on royal public relations in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promotion of political ideology*.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Academic Society for Public Relations Conference. [노병성·권오박 (2011). <조선시대 왕조 PR에 관한 고찰: 정치이념 홍보를 중심으로>. 한국홍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서울: 연세대학교.]
- Oh, J.-R. (2009). The character of politics and society and public communication in Chosun Dynasty period. *Critical Review of History*, 89, 10-33. [오종록 (2009). 조선시대 정치·사회의 성격과 의사소통. <역

사비평>, 89권, 10-33.]

- Park, J. (1993). A study on Gyoseo and Yuneum in the Joseon Dynasty. In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Ed.),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pp. 46-57).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박정규 (1993). 조선시대 교서 윤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탐구 I> (46-57쪽). 한국언론학회.]
- Park, J. (1999). A study on the royal decrees against Catholic evils in the late Chosun Dynasty.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18, 125-150. [박종천 (1999). 척사윤품 연구. <종교학연구>, 18권, 125-150.]
- Park, J., Bae, J., Lim, J., Park, K., Choi, J., Jung, J., Yoo, Y., Hwang, S., Jung, W., Nam, T., Jeong, H., Jang, J., & Cho, S. (2015). *Policy public relation*. Communication Books. [박종민·배지양·임종섭·박경희·최준혁·정주용·유영석·황성욱·정원준·남태우·전형준·장지호·조승호 (2015). <정책PR론> (3-10, 76-102쪽). 커뮤니케이션북스.]
- Park, J., Nam, T., & Kim, S. (2024). *YUNEUM: 500 years of public communica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Hakjisa. [박종민·남태우·김상연 (2024). <조선 500년 대민 커뮤니케이션 윤품 연구>. 학지사.]
- Park, J., Nam, T., Lee, S., & Cho, J. (2021). The differences in policy communication by the types of public policy and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dvertising Research*, 131, 5-43. [박종민·남태우·이세영·조만혁 (2021). 중앙행정기관 유형과 정책형태에 따른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정부의 대국민 당근 자랑하기와 채찍 양해구하기. <광고연구>, 131권, 5-43.]
- Park, K. (2001). A critical re-examination of the study on the reign of Daewongun after 17 years: A study of the policy of national wealth and military strength in Daewon-Gun regime. *Yöksa wa Hyönsil*, 40, 294-309. [박광용 (2001). 17년 만에 다시 반성적으로 제기한 대원군집권기연구: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역사와 현실>, 40권, 294-309.]
- Park, K. (2004). The eco-construction of the concept “Unlon (言論)” in the Chosun Period. *Journal of Social Sciences*, 16, 67-89. [박기성 (2004). 조선시대 언론 개념의 생태구성. <사회과학연구>, 16권, 67-89.]
- Park, Y. (2017).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 one volume*. Woongjinjishikhouse. [박영규 (2017).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웅진지식하우스.]
- Ryu, K. (2022). A study on the land tax policy based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ax law with Investigating Crop and Flat-rate Tax Act-. *GRI Reviv*, 24(2), 237-265. <https://doi.org/10.23286/gri.2022.24.2.010>. [유기현 (2022). 조선왕조실록 기반의 전세(田稅)정책에 관한 연구: 답험손실법 및 공법(貢法)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4권 2호, 237-265.]
- Schneider, A., & Ingram, H. (1990). Behavioral assumptions of policy tools. *The Journal of Politics*, 52(2),

510-529.

- Shin, B. (2006). The Joseon Dynasty's time capsul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cholar Culture*, 9, 9-15. [신병주 (2006). 조선시대판 타임캡슐: 조선왕조실록. <선비문화>, 9권, 9-15.]
- Shon, S. (2004). The conflict-structure of public sphere in Korea - Focusing on formation of modern medi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27, 153-181. [손석춘 (2004). 한국 공론장의 갈등 구조. <한국언론정보학보>, 27권, 153-181.]
- Vedung, E. (1998). Policy instruments: Typologies and theories. In M.-L. Bemelmans-Videc, R. C. Rist, & E. Vedung (Eds.), *Carrots, sticks, &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pp. 21-58). Routledge.
- Wilson, J. Q., & DiIulio, J. J., Jr. (2001). *American government*. Houghton Mifflin.
- Yi, T. (1989). On the village community Turae of the late Yi Dynasty. *The Chin-Tan Society*, 67, 1-30. [이태진 (1989). 17·18세기 향도 조직의 분화와 두레 발생. <진단학보>, 67권, 1-30.]
- Yi, T. (1999). The social and political status of public opinion in 18th-century Korean history. *The Chin-Tan Society*, 88, 249-263. [이태진 (1999). 18세기 한국사에서의 민의 사회적 정치적 위상. <진단학보>, 88권, 249-263.]
- Yi, T. (2011). *Reexamination of the Tangpyeong politics of the late Joseon Dynasty*. Taehaksa. [이태진 (2011).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태학사.]

최초 투고일 2025년 02월 0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4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5년 04월 01일